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具滋明

스트리트 헤어스타일에 나타난
미적 소외 현상 연구

A study of Aesthetic Alienation Phenomena Found in the Street Hairstyle

2004年 12月

漢城大學校 藝術大學院

패션藝術學科

헤어디자인專攻

鄭 有 珍

碩 士 學 位 論 文
指 導 教 授 具 滋 明

스트리트 헤어스타일에 나타난
미적 소외 현상 연구

A study of Aesthetic Alienation Phenomena Found in the Street Hairstyle

이 論文을 藝術學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4年 12月

漢城大學校 藝術大學院

패션藝術學科

헤어디자인專攻

鄭 有 珍

鄭有珍의 藝術學碩士學位 論文을 認定함

2004年 12月

審査委員長 申 仁 淑 

審査委員 이 희 容 

審査委員 이 25 22 

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헤어스타일에 나타난 미적소외의 표현적 특성에 관한 연구로 소외와 미적 소외의 개념에 관해 살펴보았고, 아방가르드, 추(醜)의 미학, 해체주의를 통해 미적소외의 표현적 특성을 추출하였다. 이러한 특성이 헤어스타일에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서울 압구정, 홍대, 대학로에서 2004년 10월 9일에서 30일까지 오후 1시에서 오후 6시 사이에 거리에서 발견되는 헤어스타일을 촬영하여 미적 소외의 표현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미적 소외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하나의 스타일 내에 상반된 요소가 공존하는 ‘혼용’으로 경계의 초월, 이질적인 시간적·공간적 요소, 대립적 요소의 공존 등으로 설명 될 수 있다.

둘째, 규칙적인 조화에서 벗어난 상태 또는 비례의 무시로 기괴함, 괴상함 등에서 존재하며 의식적인 과도성의 결과인 ‘왜곡’이다.

셋째, 기존의 질서 또는 형식의 ‘파괴’가 있다.

넷째, 완전성에 대한 부정으로 ‘불완전’이 있다.

다섯째, ‘비정형’으로 정형화된 것을 부정하고 탈중심, 탈구성, 위치 전환의 형식 또는 일정한 규칙이나 룰의 지배를 받지 않는 무질서한 경향으로 나타난다.

헤어스타일에 나타난 미적 소외의 표현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나간 시대의 유행을 오늘을 사는 사람들의 기호에 맞게 재 수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레트로 스타일에 나타난 시간의 혼용, 서구적인 문화의 영향으로 금발로 염색 또는 탈색을 한 헤어스타일 또는 에스닉풍의 헤어스타일에 나타난 공간의 혼용, 또는 깃털처럼 가벼운 느낌의 헤어에 아주 무거운 뱅헤어를 혼용한

스타일 등에서 ‘혼용’의 예를 찾을 수 있다.

둘째, 인체의 비례를 무시한 디자인 또는 디자인 내에서의 부분과 부분의 질서와 조화가 무시된 경우로, 보편적인 기준의 인체에서 볼 수 있는 비례를 무시하고 디자인의 크기를 과도하게 부풀린 빅바운스(Big Bounce) 헤어 또는 헤어스타일의 질서와 조화가 무시되고 특정 요소를 극도로 과장한 펑크스타일의 스파이키 헤어, 스킨헤드 등이 ‘왜곡’에 해당된다.

셋째, 헤어스타일의 소재는 모발이어야 하고 모발 이외의 소재는 고정 또는 장식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었던 기존의 고정 관념을 탈피하고 이질적인 소재가 헤어로써 사용이 된 경우나 전통적인 성의 개념 파괴로 여성의 남성화, 남성의 여성화 등이 ‘과괴’에 해당된다.

넷째, 우연과 임의성에 의한 자유로운 스타일은 정형화된 형을 탈피함으로써 불완전해 보이는 스타일을 허용하고 개인의 주관적인 미를 표현한 주로 샤키한 느낌의 스트록 컷이나 디스커넥션에 의한 가벼운 커트가 기본이 되어 왁스를 비롯한 기타 스타일링 제품을 이용해 계획되지 않은 뻗치고 헝클어져 보이는 스타일로 ‘불완전’의 미를 나타낸다.

다섯째, 디자인의 시각적 안정감이 중심을 벗어나 있는 경우나 비대칭적인 디자인으로 한쪽으로 기울여서 포니테일을 한 스타일 또는 기존의 헤어스타일에서 생각할 수 있는 모발이 고정되는 위치 또는 디자인의 포인트가 되는 위치 등이 전환되어 있는 경우가 ‘비정형’에 해당된다.

이상에서 나타나는 현대 헤어스타일의 다양한 특성들은 미적 기준이 다양화되어 유동적 미적 가치와 미적 기준을 받아들이는 미적 소외에서 찾아볼 수 있었으며, 혼용, 왜곡, 과괴, 불완전, 비정형의 미적 소외의 표현적 특성에 의해 현대의 젊은이들의 스트리트 헤어스타일을 분석할 수 있었다. 미적소외는 사회가 제시하는 미적 가치 기준을 불필요한 것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예술의 상대적 자율

성을 부여하여 예술의 다양화와 미적 가치와 미적 기준에 대하여 열린 개념과 비주류, 소외되고 은폐되었던 것에 대한 발견으로 새로움을 받아들이는 사고의 전환을 유발시켰다고 할 수 있다.

목 차

국문초록

I. 서 론	1
1. 연구 의의와 목적	1
2. 연구 내용과 방법	3
II. 미적 소외의 개념과 발생배경	5
1. 소외의 개념	5
2. 미적소외의 발생배경 및 개념	9
1) 아방가르드	10
2) 추(醜)의 미학	16
3) 해체주의	21
3. 미적소외에 관한 선행 연구 고찰	24
III. 스트리트 헤어스타일의 미적 소외 유형	26
1. 혼용	29
2. 왜곡	35
3. 파괴	40
4. 불완전	47
5. 비정형	50
IV. 결 론	54
참 고 문 헌	57
ABSTRACT	59

표 목 차

<표 1> 스트리트 헤어스타일의 미적 소외 유형	53
----------------------------------	----

사 진 목 차

<사진 1> 각기 다른 스타일이 하나의 디자인에 혼용된 스타일	32
<사진 2> 50년대의 짧고 무거운 뱅헤어와 70년대의 웨이브가 혼용	32
<사진 3> 헤어스타일에 나타나는 지역적·인종적 특수성이 혼용에 의해 이질적 공간에서 나타난 브레이즈	32
<사진 4> 흑인문화의 영향에 의한 브레이즈	32
<사진 5> 흑인문화의 영향에 의한 드레드락	33
<사진 6> 흑인의 모질을 재연한 아프로 펌	33
<사진 7> 아프로 헤어스타일을 응용한 호일펌	33
<사진 8> 아프로 헤어스타일을 응용한 붐매직	33
<사진 9> 가벼움과 무거움의 이질적 질감이 하나의 스타일에 공존	34
<사진 10> 밝고 어두운 이질적 칼라가 하나의 스타일에 공존	34
<사진 11> 헤어스타일의 형태를 과장	37
<사진 12> 헤어스타일과 인체와의 비례 무시	37
<사진 13> 불규칙적인 길이를 세운 스파이키 스타일	38
<사진 14> 기존 헤어스타일의 조화와 규칙성을 무시한 스타일	38

<사진 15> 의도적 과도성에 의한 스타일링	38
<사진 16> 기존 헤어스타일의 형태 표현 방법을 무시	38
<사진 17>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불규칙한 길이에 의한 스타일	39
<사진 18> 짧은 길이와 긴 길이가 부조화 속의 조화를 이루는 헤어스타일	39
<사진 19> 장식적 효과를 위해 모발 이외의 소재를 사용	43
<사진 20> 장식적 효과를 위해 가모를 사용	43
<사진 21> 여성적 요소로 생각되는 펌을 남성의 헤어스타일에 사용	43
<사진 22> 여성적 이미지의 남성 헤어스타일	43
<사진 23> 여성만의 헤어스타일이라 생각되는 포니테일을 한 남성 헤어스타일	44
<사진 24> 남성적 요소라고 생각되는 아주 짧은 길이를 이용한 여성 헤어스타일	44
<사진 25> 남성적 이미지가 사용된 여성 헤어스타일	44
<사진 26> 중성적 이미지의 헤어스타일	44
<사진 27> 중성적 이미지의 헤어스타일	45
<사진 28> 기존의 전체적으로 둥글고 완만한 형태를 파괴한 스타일링	45
<사진 29> 기존의 형태를 파괴한 헤어스타일	45
<사진 30> 헤어스타일의 질감에 대한 고정관념 파괴	46
<사진 31> 정형화된 헤어스타일의 질감 파괴	46
<사진 32> 파스텔 칼라의 사용	46
<사진 33> 원색의 칼라 사용	46
<사진 34> 샄기한 질감으로 스타일의 변화가 용이한 헤어스타일	49
<사진 35> 정형화된 형을 탈피하여 우연과 임의성에 의한 헤어스타일	49
<사진 36> 가볍고 유동적 형태의 헤어스타일	49
<사진 37> 위치 전환에 의한 탈중심적 헤어스타일	51
<사진 38> 탈중심적 헤어스타일	51

I. 서론

1. 연구 의의와 목적

미의식은 각 시대나 사회·문화적 환경에 의해 변화한다. 과거 전통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의미는 획일적이고 고정적이었으며 각 시대의 지배적 양식이 존재했었다. 그러나 과학의 진보와 물질문명의 발전이 가속화됨에 따라 다변화된 현대사회에서는 기존의 장르와 새로운 장르 간의 시도가 많아지면서 장르의 혼합 및 붕괴 현상을 보이며 한 가지의 스타일이 지배적이기 보다는 여러 스타일이 공존하는 현상이 두드러짐에 따라 아름다움에 대한 의미는 다양한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는 무제한적인 미의 수용으로 기존의 전형적인 미에서 벗어나 미적 가치가 다원화되어 정상적이고 평범한 이미지보다 과장되고 괴이하며 충격적인 모습을 한 추의 미가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1990년 후반 캣 워크¹⁾의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에서도 형태파괴, 불안정성, 왜곡, 기형 등 실험적이고 충격적인 추의 미가 본격적으로 표현되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소외에서 찾고자한다. 소외란 사회학 사전에서는 사회와 문화로부터의 소격 또는 불개입의 감정, 타인에 의해서 분담된 가치와 사회 규범의 무의미성, 좌절, 무력감 등으로 그 특징을 규정하고 있다. 소외는 현대 과학문명의 폐해를 가장 단적으로 드러내는 언어로 일반적으로는 이탈 또는 획일화와 같은 부정적인 사회현상과 함께 이해되며, 소외의 개념이 예술에 전용되어 나타난 미적소외는 기존의 사회가 제시하는 미적 가치의 부정으로 보고 있다.

1) 캣워크(cat-walk) : 패션쇼에서 모델들이 워킹을 하는 객석사이로 난 좁고 긴 무대

이러한 미적 소외의 표현적 특성은 기존 예술이 갖고 있던 낡은 형식을 파괴하고 현실로부터 분리되어 대결되고 부정의 정신으로부터 탄생하여 부르조아 사회와 그의 산물인 부르주아 예술을 파괴하는 아방가르드, 이러한 아방가르드의 반미적 경향으로 가치의 붕괴이자 미적 가치의 전환을 의미하는 추의 미학, 이분법적인 서구적 전통을 비판하여 구조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전통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고정관념을 무너뜨리려는 해체주의를 통해 찾을 수 있다.

헤어스타일은 인간의 생활 속에서 각 개인의 가치관과 미적 감각 및 개인적인 취향 등 자아정체성을 표현하는 하나의 매개체이며 한 시대의 정치·사회·문화적 요소를 모두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헤어스타일은 한 시대의 특성을 지닌 중요한 미적 범주의 하나이며 헤어스타일 분석을 통해 그 시대의 문화와 흐름, 미의식 등을 알 수 있다. 요즘에는 헤어스타일에서도 기존의 미적기준과는 전혀 다른 다양한 헤어스타일이 창출되고 그것이 새로운 미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미적 기준이 다양화된 원인을 유동적 미적 가치와 미적 기준을 받아들이는 미적 소외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다양화된 헤어스타일을 아방가르드, 추의 미학, 해체주의의 미적 소외의 특성에 의해 유형화하여 현대의 헤어스타일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 사회의 대도시의 문화는 대중이 주도하는 복잡 다양한 광역의 문화로 볼 수 있으며 대도시의 거리는 단순한 공간상의 거리가 아니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가치관, 취향, 기호 등을 표현하는 이른바 문화 창조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거리문화를 만들어 내는 주역인 젊은 청년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모색하고 수집하여 그들만의 독특한 스타일과 유행경향을 창조해 내고 이로 인해 끊임없이 새로운 미적 기준이 탄생하고 있다. 또한 이들의 독창적인 발상을 통해 연출된 스타일은 그들의 가치관과 기호를 표현하며 나아가 그들이 수용하는 현대 사회의 변화상을 읽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패션 산업체

에서는 패션 중심도시의 스트리트 패션에 관심을 갖고 조사하며 패션정보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헤어 분야의 연구가 키치미²⁾, 페미니즘³⁾, 히피⁴⁾, 핑크⁵⁾, 해체주의⁶⁾ 등 헤어스타일의 조형적 특성 분석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아직 스트리트 헤어스타일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의 스트리트 헤어스타일이 어떤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스트리트 헤어스타일을 특성을 분석하고 미적소외와의 연관성을 규명한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헤어스타일을 통해 반영되는 사회상의 이해에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 내용과 방법

본 연구는 헤어스타일에 나타난 미적소외에 대한 연구로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외의 개념과 예술분야의 미학적 특성인 미적소외의 개념에 관해 살펴본다.

-
- 2) 이수인, 박길순 (2000), 「현대 헤어스타일에 나타난 키치미의 상징성 연구」, 한국생활과학회, 9권 3호, pp.371~382.
 - 3) 김묘영 (2002), 「현대 헤어스타일에 나타난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 박길순, 이주연 (1996), 「히피 헤어스타일과 패션의 의미 및 영향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학회, 7권 4호, pp.567~577.
 - 5) 공차숙, (2002) 「하위문화에 나타난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 분석 연구 : 히피와 핑크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6) 조미영 (1998), 「현대 헤어스타일에 나타난 해체현상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적 소외의 특성을 아방가르드, 추(醜)의 미학, 해체주의의 특성을 토대로 혼용, 왜곡, 파괴, 불완전, 비정형의 5가지 개념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혼용은 크게 시간적 요소의 혼용, 공간적 요소의 혼용, 대립적 요소의 혼용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왜곡은 비례의 무시에 의한 디자인의 왜곡과 질서와 조화의 무시로 인한 왜곡으로 파괴는 기존 질서의 파괴와 형식의 파괴로 나눌 수 있다. 또 불완전은 임의성과 예술적 법칙의 위배로 비정형은 탈중심, 탈구성, 위치 전환의 형식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이상의 개념과 표현적 특성을 연구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통된 특성을 유추해 냄으로써 미적소외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헤어스타일에 적용시켜 2004년 스트리트 헤어스타일에 나타난 미적소외에 대해 알아본다.

본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외와 미적소외의 발생배경과 개념을 고찰하기 위해 철학 및 미학에 관한 국내외의 단행본과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문헌 자료를 중심으로 연구한다.

둘째, 스트리트 헤어스타일에 나타난 미적 소외의 유형을 알아보기 위해 패션 트렌드에 민감하고 소비력이 있으며, 패션리더 층을 형성하고 있는 20대를 대상으로 최근 패션 트렌드의 주요 지역이라 생각되는 서울시의 압구정, 홍대, 대학로를 중심으로 거리에서 발견되는 스트리트 헤어스타일 자료를 수집한다. 조사 기간은 2004년 10월 9일부터 30일까지 오후 1시에서 오후 6시 사이에 거리에서 발견되는 헤어스타일을 촬영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한다.

II. 미적 소외의 발생배경 및 개념

1. 소외의 개념

소외(疎外)는 산업사회에서의 상실감, 불안감, 절망감, 비인간화, 냉담, 사회해체, 고독감, 무의미감, 무규범감, 비관주의 등 사회로부터 또는 자신으로부터의 이탈현상을 나타내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영어의 alienation, 불어의 alienation, 독어의 entfremdung을 우리말로 옮겨 놓은 것으로 ‘낯선’을 뜻하는 alienus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alienus는 ‘다른’을 뜻하는 alius에서 유래되어 일반적으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질적이 되는 과정이나 과정의 결과’ 혹은 ‘본래 지녔던 어떤 것이 상실되거나 낯설게 되는 상태나 과정’으로 정의될 수 있다⁷⁾. 그러나 소외의 개념은 역사에 따라서 변화해 왔고 학자들에 따라서 상이한 현상을 지칭하곤 한다. 소외는 다원적인 것으로써 심리적 현상이고 동시에 정신병리학적 현상이며 사회적 현상이다. 소외개념이 지니는 다의성(多義性)에도 불구하고 현대 사회의 인간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임은 말할 필요가 없다.

근대 문명 비판적인 의미에서 소외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독일의 철학자 헤겔(Hegel, Georg wilhelm Friedrich)은 개개인이 품고 있는 뿌리가 없는 듯한 감각이나 무 목적성, 실체 상실의 감각 등이 소외 관념의 기초를 이루는 것이라 하였다. 그리고 그것은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상실이고 자기 자신의 향상심이나 자신의 규범 또는 야심을 살릴 희망이 상실되는 감각이라고 규정하였다. 헤겔은 자기소외의 행위를 자기의 객관화라고 이해하고 주체가 객체로 전환되는 과정으로

7) 민경환 (1993), 「소외의 심리학적 개념화」, 한국심리학회지, 7권 1호, p. 71.

이해하고 있었다. 그에 의하면 표상(表象) 또는 ‘객관적 정신’의 여러 형식은 그들을 만들어 낸 것들로부터 독립함으로 그것들은 그로부터 소외된 것이 된다고 했다. 그는 이것을 인간이 그 자신의 창조물 즉 예술작품이나 종교, 과학 따위 속에서 자신을 상실하고, 정신적으로 현실성을 갖지 않는 소외된 환상의 세계에 살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포이에르바흐(Feuerbach, Ludwig)는 종교적 미신과 물신주의(fetishism)현상에서 소외의 근원을 찾고 있다. 그에 의하면 신이란 인간의 가장 주체적이고 고유한 본질이 분리되어 추출된 것이다. 신이 더 주체적이고 더 인간적일수록 인간은 더욱더 자기의 주체성과 인간성에서 소외된다. 왜냐하면 신이란 인간의 자아가 소외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모든 사상사를 인간정신의 점진적인 각성의 역사로 보고 기독교에서의 신의 형상이 편협한 신에서 보편적인 개념으로 변화되려면 소외나 자기소외이라는 비판적 도구를 통해 신학을 인간학으로 대체하고 신을 폐위하고 인간을 즉위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포이에르바흐의 이 같은 종교비판은 인간이 자신의 본질을 실현하는데 도움을 준다.

마르크스(Marx, Karl Heinrich)에 따르면 본질적인 소외는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성격을 가진다. 그는 인간이 소외되고 자아의 잠재력을 실현하지 못하는 것은 주로 노동에 기인한다고 보았다.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버림으로써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에 대해 낯설어진다.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결과에 대해 아무 소유권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노동으로부터 소외되며 수많은 공정으로 나누어진 노동 과정의 한 부속품이 되어 버린다. 이때 소외는 심리적 박탈과 경제적 박탈의 결과를 동시에 포함한다. 그의 초기 논문 경제학·철학 수고에서 소외는 4가지 측면에서 파악되었다. 노동의 대상화된 것이 인간 주체로부터 자립하여 대립적으로 나타나는 노동성파로부터의 소외, 노동은 삶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며 인간다운 삶이 노동 이외의 장(場)에서 추구되는 것으로 보는 자기소외, 인간

존재를 개인적인 현존의 수단으로 보는 인간보편성의 소외인 무리로부터의 소외, 인간의 인간으로부터의 소외가 그것이다. 이 소외된 노동은 노동과정이 자본가적 생산과정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생긴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였다. 여기서 마르크스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물건과 물건의 관계로 표시되는 상품세계에서의 소외와 노동력이 상품이 되고 노동이 그 사용가치가 되는 자본주의적 생산에서의 소외를 문제시하였다.

마르크스의 사회적 · 경제적 불평등으로부터의 소외와는 달리 프롬(Fromm, Erich)의 경우에는 사회적 · 경제적 평등화가 진전되고 풍요한 사회 속에서 오히려 인간이 빈곤화 된다는 기묘한 소외나 권력욕에 사로잡히거나 권력에 맹종하거나 하는 인간에게서 볼 수 있는 권력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소외가 정신분석학의 통찰로 분석된다. 프롬은 소외의 의미를 인간이 자신 및 타인 어느 누구에게도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자기 자신까지도 이질적인 존재로 생각하게 되는 것에서부터 비롯된다고 파악하였다. 즉, 인간이 자기 자신을 한 사람의 이방인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비인간적인 상태, 개성을 상실한 상태에 있는 인간을 소외된 인간으로 보았다. 인간소외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적 제도를 포함한 사회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인간의 이성과 사랑에 바탕을 둔 인간주의적 공동체 사회의 건설을 역설하고 있다. 그는 체제 비판적 입장에서 소외가 극복된 미래사회의 건설을 제시하고 있고 또한 인간이 이성, 자유, 진보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소외의 철학적 입장에 영향을 받으면서 소외를 사회심리학적 측면에서 보는 미국의 사회학자 시먼(Seeman, Melvin)은 소외를 경험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실증적으로 파악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는 소외의 양상을 행위자 즉 개인을 중심으로 사회 심리학적 입장에서 6가지로 분류하면서 소외를 개인의 기대감, 가치 개념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⁸⁾ 즉 인간이 정치 · 사회 · 문화

적으로 사회에 대해 자신이 아무런 영향을 실체화할 수 없을 때 느끼는 ‘무력감’, 요즈음의 현실은 물론이고 미래를 전망할 수 없다고 느낄 때의 ‘무의미성, 복잡성, 불예측성’, 개인의 목표 성취를 위해 사회 규범을 거부할 때 나타나는 ‘무규범성’, 사회 통념이나 가치, 대중문화를 거부할 때의 ‘가치상의 고립’, 자기 스스로가 남처럼 느껴질 때의 ‘자기소원, 낯설음’, 개인이 집단으로부터 격리되어 지연, 혈연 등의 연대감이 상실될 때의 ‘사회적 고립’이 그것이다. 이러한 상태에 있을 때의 인간을 소외된 인간으로 판정될 수 있다.

소외는 현대인의 삶에 대한 분석에서 유행처럼 출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해한 의미를 지닌 애매한 개념으로 남아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소외의 공통적 개념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자신의 운명이 스스로의 지배를 벗어나 외부적 대리자, 운명, 행운, 제도적 장치들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느낌인 무력성(powerlessness)이고, 둘째는 무의미성(meaninglessness)으로 세상사 또는 인간 상호간의 관계 등 행동의 어떤 영역에서 포괄성이나 일관된 의미의 결여, 또는 일반적 의미의 삶의 맹목성 때문에 생기는 감정이다. 셋째는 무규범성(formlessness)으로 행동에 대한 사회적 규정들을 이행하는 구속성의 결여로 일탈행위, 불신감, 무한한 개인적 경쟁심들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문화적 소외(cultural estrangement)는 정의하기 가장 어렵고 어떤 의미로는 가장 주된 주제로서 어떤 식으로든지 개인이 자기 자신에게서 벗어나 있다는 느낌들이다.

결국, 소외라는 표현은 인간의 본질과 그 대상 사이의 다양한 분리와 균열 또는 결여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고정적인 의미로써 특정 시대 또는 특정 사회에 국한되어 정의 내리기 보다는 사회의 변화를 이해하는 하나의 코드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8) 최희숙 (1997), 「소외를 주제로 한 패션일러스트레이션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디자인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7.

2. 미적소외의 발생배경 및 개념

마르크스나 헤겔, 포이에르바하 등 여러 학자들은 모두 소외라고 말할 때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고 있는 보편성의 상실을 의미하고 있다. 종교, 과학, 도덕 등이 흔들렸을 때 인간은 외적인 것에서 자기 자신에게로 눈을 돌린다. 문학, 음악, 미술은 이와 같은 정신적인 전환이 현실적인 형태에서 두드러지게 되는 가장 감각적인 첫 번째 영역으로서 예술이 소외를 가장 먼저 인식하고 표현하게 되었다.⁹⁾ 소외는 예술의 형식이 아니라 내용으로서 여러 이즘(ism)이 각양각색의 특성을 나타내며 변화하는 근저에서도 작용하여 20세기 여러 예술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¹⁰⁾

이러한 예술의 소외에 대한 논의는 마르크스의 시각에서 출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마르크스는 칸트의 물질주의에서 시작하는 헤겔의 소외개념을 노동과 연관시켜 해명하고자 하였다. 그는 고대의 예술에 나타난 인간과 자연과의 조화가 사회의 발달에 의해 파괴되었으며 예술에 있어 자연이란 삶에 해당하는 것으로 근대 이후의 문화사는 삶으로부터의 이탈과정, 즉 소외를 반영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예술은 상품가치로 전락해 버리고 정치적으로는 검열과 통제에 의해 억압을 받으며 이데올로기적으로는 예술의 주관주의가 나타나는 계기가 되었다.¹¹⁾ 예술에 있어 주관성은 사회가 제시하는 기존의 미적 가치 기준을 부정함으로써 예술가들을 소외시켰다.

결국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회의 출현은 일차적으로는 그것에 대한 긍정적 반

9) Wassily Kandinsky (1998), 『예술에 있어서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 권영필 역, 서울 : 열화당, p.37.

10) Ernst Fischer (1984), 『예술이란 무엇인가』, 김성기 역, 서울 : 돌베개, p.103.

11) 양취경, 이건희 (2002), 「Comme des Garçons 작품에 나타난 미적 소외에 관한 연구」, 생활문화연구, 16권, p.25.

응이 지배적이겠지만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여 사회경제적 구조가 점차적으로 정착됨에 따라 그것이 갖는 부정적 요소가 표면화되고 이러한 부정적 요소에 대한 비판이 소외개념을 형성하게 된다.¹²⁾ 소외는 예술에 상대적 자율성을 부여하였고 예술가에게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기보다는 부정하고 비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같은 예술가의 사회비판의 역할은 전통의 부정을 통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예술 전통의 부정은 새로움을 창조하는 힘으로 작용하여 예술의 다양화를 가져왔고 예술의 소외성을 더욱 두드러지게 한 것으로 생각된다.

본 논문에서는 미적소외의 개념을 기존의 사회가 제시하는 미적 가치 기준의 부정으로 보고 이를 통한 새로운 미적 가치 기준으로의 접근을 시도한 양식 즉, 부정의 정신으로부터 탄생하여 부르주아 사회와 함께 그 산물인 부르주아 예술을 파괴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삼았던 아방가르드, 아방가르드의 반미적 경향으로 가치의 붕괴이자 미적 가치의 전환을 의미하는 추(醜) 미학, 이분법적인 서구적 전통을 비판하여 구조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전통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고정관념을 무너뜨리려는 해체주의를 통해 그 표현적 특성을 알아보려고 한다.

1) 아방가르드(avant-garde)

아방가르드란 용어는 오랜 세월을 통해 수많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다양하게 해석되고 사용되어져 왔다. ‘아방가르드’란 용어는 다른 사람들이 따라 올 길을 닦는 전선에 나선 이¹³⁾를 칭하는 것으로 원래 군대 용어로 전투할 때 선두에 서서 적진을 향해 돌진하는 부대를 뜻하는 것이었으나 이후 예술에 전용(轉用)되어 끊임 없이 미지의 문제와 대결하여 이제까지의 예술개념을 일변시킬 수 있

12) 정문길 (1978), 『소외론 연구』, 서울 : 문학과 지성사, p.23.

13) Richard Kostelanetz (1977), 『아방가르드』, 양은희 역, 서울 : 시각과 언어, p.13.

는 혁명적인 예술경향 또는 그 운동을 뜻하기에 이르렀다. 미술용어 사전에서 아방가르드는 전위, 선두, 선구 등의 뜻으로 인습적인 권위와 전통에 반항, 혁명적인 예술운동의 가치를 내걸고 행동하는 예술운동으로 특정의 주의나 형식을 가리키는 용어라기보다는 신세대의 급진적인 예술정신 전반에 걸쳐서 사용하는 말¹⁴⁾로 규정하고 있다. 아방가르드는 미술 분야뿐만 아니라 음악과 문학에 있어서 전위파들을 일컫는 말이기도 하다. 전위예술에 있어서의 전위라는 말은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참신함을 지니고 있는 말이며 예술사의 진행 속에서 진정으로 예외적인 현상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현대 예술은 곧 전위예술이요 전위적인 성격의 예술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아방가르드는 기성예술에의 반항이나 혁명정신 그 자체가 대중사회의 다양한 풍속 속에 확산하여 특정 유파나 운동에 그치지 않고 첨단적인 경향의 총칭으로 이해된다.

아방가르드라는 용어가 본래의 군사적 의미를 잃고 점차 정치적이거나 사회적인 의미를 지닌 급진주의적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유토피아적 사회 개혁가들이나 사회주의자들 또는 무정부주의자들에 의해서였다. 사회개혁자들이 말하는 아방가르드라는 용어는 이상적인 사회주의의 건설과 관련된 사회적, 정치적 의미를 띄고 있으나 진정한 의미에서 문학이나 예술과 관련된 개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19세기 중엽에 이르러 아방가르드는 문예개념으로 사용되는데 위고, 발자크, 보들레르와 같은 시인이나 소설가 그리고 생트뵈브, 리고와 같은 문학 비평가의 글에서 처음 언급되어진 바 있다.¹⁵⁾이렇게 해서 이 용어는 사회형태에 대한 급진적인 비판정신을 예술형태의 영역으로 이전시키는 조그마한 선진작가들과 예술가들의 집단을 지시하게 되었다.

14) 월간미술 篇 (1989), 『세계미술용어사전』, 서울 : 중앙일보사, p.341.

15) 김옥동 (1992),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 서울 : 현암사, p.137.

19세기 후반기에 인습적인 예술 영역에서 영향력을 획득하지 못한 단계로 ‘소외된 아방가르드’는 예술을 정치적 사회적 변혁이나 혁명의 수단으로 삼고자 하는 정치적 급진주의와 정치적 사회적 관점에서 예술의 기능을 새롭게 조명하고자 한 예술적 급진주의 두 영역을 포함한다. 이 두 급진주의자들은 출발과 함께 서로 분리되기 시작하였다. 즉 정치적 아방가르드와 심미적 아방가르드 사이의 긴밀한 연관은 끊어지고 이로부터 아방가르드는 정치적 의미로부터 벗어나 예술가 개인의 형식적 실험의 탐구라는 독립된 예술적 개념으로 등장하게 된다. 전자는 사회주의 리얼리즘, 후자는 극단적 아방가르드 유파들로 지속되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의 아방가르드 예술은 자연주의, 표현주의, 미래주의, 상징주의, 다다이즘, 초현실주의 등의 양식으로 표출되었으며 1945년 이후에는 미국 회화에서 팝아트, 옵아트, 미니멀 아트, 컨셉트 아트 등으로 대두되었는데 새로운 시공간 형식, 전통적 형식의 극복, 예술 이해의 변화가 이러한 발전을 특징지었다. 더 이상 완결된 작품이 중요하지 않게 되었고 예술적 생산과 수용의 응고된 형식을 파괴하는 사건이나 그 과정이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오늘날의 아방가르드의 예술적 양상은 아이러니하게도 극단적인 부정의 아방가르드가 마침내 성공하고 다시 대중의 예술, 아카데미즘의 예술이 되었다. 반예술이 표준화되고 전통을 해체시키고자 한 그들의 혁명이 다시 전통이 되어 지속되고 보장되기까지 한다. 즉, 아방가르드의 형식은 낡은 것과 새로운 것의 교차과정 속에서 술한 이즘들이 나왔다가 사라지곤 하면서 매년 부단히 변화하고 있다. 아방가르드 예술의 신속한 발전에 따라 예술의 자유는 허용가능한 정도가 극대화하고 있으며 이제 아방가르드 예술은 현대적 상황에 대처하는 인간의 자유로운 상태에서의 창조적 의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아방가르드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진 학자는 루카치(Georg Lukacs), 아도르노(Theo-dor W. Adorno), 뷔르거(Peter Burger)를 꼽을 수 있다. 가장 극

단적인 입장으로 루카치와 아도르노는 예술비평에서 크게 상반되는 두 흐름 즉,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이라는 축을 통하여 아방가르드를 조명하고 있으며, 또한 뷔르거는 이 양자를 지양하면서 나름대로는 객관적으로 가치중립적으로 아방가르드 이론을 펼치고 있다.

루카치는 아방가르드 이념 비판을 통하여 아방가르드가 현대 예술의 핵심적 내용을 이루는 것은 저지함으로써 인간 의식의 실천 형식으로 규범화한 리얼리즘의 가능성이 드러나게 하려했다. 루카치가 가장 불만스럽게 생각한 것은, 아방가르드가 인간의 존재를 무엇으로 보느냐 하는 문제였다. 이를 아방가르드의 '존재론'이라 한다. 아방가르드의 존재론은 고독과 그로 인한 실존적 불안의식을 인간 본성으로 본다. 리얼리즘에서는 고독을, 인간이 그 성격이나 생활환경 때문에 처하게 되는 특정한 상황으로 설명하므로 개인의 고독은 하나의 특수한 사회적 운명일 뿐이다. 그러나 아방가르드에 있어서 고독은 보편적인 인간 조건으로 작용하므로 인간 존재의 피할 수 없는 사실로 고정되어 버린다. 고독이 모든 인간의 중심에 놓이게 됨에 따라 상호간의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될 터이고, 이로 인한 인간의 고립은 자신의 탄생 배경과 자신의 존재를 분리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와 같이 탈사회적, 탈역사적 존재가 되는 인간에게서는 역사의 부정이 일어나게 되며 그 원인이 아방가르드의 존재론에 있다고 루카치는 생각한다.

아방가르드의 이념이 인간을 본래 고독한 것이라 본다는 지점에 동의하면서도 루카치와는 달리 아방가르드를 옹호한 학자가 아도르노이다. 루카치의 말처럼 그는 고독이 서로를 알지 못하는 도회인들의 공통적이며 보편적인 속성임을 인정한다. 그러나 아도르노는 불안과 고독을 주관적인 의식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매개된 것, 즉 객관적인 성격을 띤 것이며 역사적으로는 형성된 것일 뿐 아니라 인간의 '원초적 현상'이라고 반박하고 아방가르드 예술이 가장 진보된 예술이라는

입장을 취한다. 아도르노의 체계에서 아방가르드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현대사회의 물화된 현상의 소외에 극명하게 항거하는 고독의 양식일뿐더러, 그 형식의 내재적 힘으로 인하여 인간의 역사 서술의 역할을 부담하고, 수용자에게 극도의 자유, 극도의 긴장을 요구한다.

뷔르거는 아방가르드 이론을 오늘날 예술이론에서 다루어야 할 필수적 요소로 꼽는다. 아방가르드 이론은 뷔르거에게 시민사회 예술의 발전을 파악할 수 있는 논리적 처소가 되고 있다. 후기 시민사회가 문화적 가치영역으로서의 예술을 말살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다고 판단하는 그의 현대적 관심은 후기 시민사회가 처한 위기를 인식하고자 하는 데에 있었다. 그는 루카치에 대하여 그의 아방가르드 비판이 헤겔미학의 낭만예술 비판과 닮아 있음을 지적한다. 루카치가 아방가르드를 리얼리즘의 해체로 파악하는 모델은 헤겔이 낭만예술을 고전주의의 해체로 파악하는데 있었다. 헤겔은 고전주의적 예술을 정신과 감각성의 완전한 관철로 규정하며 루카치는 리얼리즘 예술을 인간과 외부세계 사건들 사이의 상관관계로 성격 지운다. 두 시기의 예술의 공통점은 주체와 객체의 통일이라는 데에서 찾아질 수 있을 것이다. 뷔르거는 아도르노에 대하여는 루카치에게 보다 훨씬 더 호감을 갖고 있으며 자신의 이론 중 많은 부분을 암시받기도 하였음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아도르노 이론에 대해서도 그는 역시 아방가르드 이론으로 부적절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뷔르거는 아방가르드의 의의를 '제도예술'에 대한 인식을 주었다는 점에서 찾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이 시민사회 예술의 발전을 파악할 수 있는 논리적인 지점이 되고 있음을 비판적 과학의 방법론을 통해서 통찰해냄으로써 "미학이론은 다만 이것이 대상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반성하는 정도에 따라서만 그 가치가 정해진다." 는 대전제를 만족시키고 있다.

아방가르드를 보는 시각이 이와 같이 다른 이유는 그들의 학문 체계 내에서 아방가르드가 차지하는 위치와 상관된다. 루카치는 리얼리즘 미학 이론의 체계에

서있으며, 아도르노는 사회학적 미학의 입장에, 뷔르거는 비판적 문예학을 창조하려는 노력에서 각각 아방가르드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 그러나 그들의 학문적 견해의 차이를 떠나서 아방가르드의 공통적 특징을 소외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레나토 포지올리(Renato Poggioli)는 아방가르드를 ‘소외 상태’라고 했다. 결국 아방가르드는 예술의 본질인 소외적 성격¹⁶⁾ 즉 타자성의 표출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예술전통의 부정은 기존의 예술이 갖고 있던 낡은 형식을 파기하고 새로운 시대를 예견하는 아방가르드적 예술작품은 그것의 의미를 작품전체의 지배로부터 해방시킨다는 사실에 바탕을 둬으로써 새로운 유형의 예술을 가능케 한다. 현대에 나타나는 아방가르드한 경향은 현실로부터 분리되어 현실과 대결되는 미적 소외의 표현으로 아방가르드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미래적 역동주의

아방가르드의 특성 중 미래적 역동주의의 미적 실체는 제도권의 형식주의적 미의 실체를 정면에서 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미래주의적 과학이미지로서 인공적인 미와 비일상적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오브제와 복합 재료주의를 통하여 카테고리들을 확장하였다. 또한 미학적 가치 기준을 발전시켜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2) 소외적 적대주의

아방가르드의 특성 중 소외적 적대감의 미적 실체는 모든 가치의 부정과 파괴로서 그것의 찬미는 고상한 취미의 부정으로서 반 부르주아적 저항성과 독창성을 유지함으로써 대중과의 결별효과를 노린 반 대중주의적 추상성, 고상함에 대

16) 김문환 (1989), 『마르크제 미학사상』, 서울 : 문예출판사, p.180.

한 조롱으로서 반 권위주의적 해학성 등을 들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상황들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키치, 비정형, 미적소외, 소외적 희화, 풍자적 왜곡 등의 조형적 언어가 사용된다.

(3) 초현실적 실험주의

초현실주의 이념은 인간의 ‘정신해방’을 목표로 하였으며 현실 속에서 표현된 미적 실체는 전통적 미와는 반대되는 착오성과 변용과 전위에 의한 의외성, 비합리성에 의한 새로운 미의 개념, 우연성과 미완성에 의한 불확정성, 대립적 양식의 혼합 현상에 의한 양면성으로 표현된다.

2) 추(醜)의 미학

추(醜)의 이미지는 여러 사상과 이념이 새롭게 재정립되는 과도기인 20세기에 ‘과거와의 급격한 단절’, ‘전통과의 결별’ 그에 따른 ‘혁신적인 새로움의 추구’ 등의 분위기에 부흥하여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아방가르드(Avant-garde)와 아방가르드 이후의 새로운 양식인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에 관해 살펴봄으로써 추(醜)의 표현이 발생하게 된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20세기 전반의 모더니즘 가운데 가장 실험적인 것들을 ‘아방가르드’라 불렀으며, 이것은 사회적인 저항세력의 선두를 지칭하였다. 이 시기를 전후로 약 20년 동안 유럽 각지에서는 일찍이 볼 수 없었던 과격하고 혁신적인 미술운동이 거의 동시에 전개되었으며, 과거의 유미적 경향의 예술조류에 반발하여 그로테스크한 것, 추한 것, 비전형적인 것, 탈 윤리적인 것, 무 형식적인 것, 논리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 등을 예술에 표현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기존의 인습적 예

술 개념을 철저히 와해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들은 ‘전통과의 단절’을 지향하고 나섰다. 아방가르드 경향을 띤 예술의 특성은 ‘새로움과 극단화’로 모든 구성요소를 모던의 전통으로부터 빌려와 부풀리고 과장하고 거의 알아볼 수 없게 만들었다.¹⁷⁾ 다시 말해서 이러한 반미적 경향인 추는 가치의 붕괴이자 ‘미적 가치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1980년대에는 ‘단절’의 전위 개념으로 포괄할 수 없는 새로운 양상인 포스트모더니즘이 전개되었는데, 전통의 부활 · 역사에로의 회귀 · 절충주의라는 수많은 양상들은 1900년대의 전위미술과는 상반된 특성들로 과거와의 완전한 결별을 목적으로 삼지는 않았다. 특히 과거 미적 범주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았던 추의 개념이 현대 예술에서는 미적 인상에 활기를 불어넣어 생명감을 높여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보다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추(醜)는 미(美)의 대립 개념으로 간주되고 있으나 대립적인 개념은 아니고 다만 미가 결핍된 상태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미적 규범에 위배되고 미적 관조를 방해하는 것 즉, 반미적인 것을 의미한다. 고전적 미학에서 악(惡)으로 취급되고 부정적 의미로 배척받던 추는 바로크와 사실주의, 자연주의의 문예 및 미술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점차로 예술의 세계에 침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학상에서도 추의 미적 의의를 인정하려는 이론이 나타나게 된다.

헤겔학파의 관념론적인 입장을 대변하는 샤슬러(Schasler)는 소재에 있어서 추는 미가 그것을 통해 자기를 의식하고 미를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계기라고 하였으며, 20세기 해석학을 대표하는 가다머(H. G. Gadamer)는 주체의 기분이 나 미각에 따라 대상이 아름답게 느껴지기도 하고 추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가변적인 것으로 이해하였다. 또한 립스(Lipps)는 쾌감을 적극적인 감정이입(die

17) Matei Calinescu (1993), 『포더니티의 다섯 얼굴』, 이영옥 외 3명 역, 서울 : 시각과 언어, pp.125~157.

positive Einfeldung)이라 칭하고 불쾌감을 주는 것을 소극적인 감정이입(die negative Einfeldung)라고 하였다. 그는 형식 또는 형식의 관조에 있어서 내적으로 자유롭지 않다거나 어떤 강제력을 느끼게 될 때 추한 것이 된다고 하였으며, 추는 소극적 감정이입의 대상으로서 미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추의 적극적 의의를 인정하고 있다.

추에 관한 공통된 특성은 미적 범주의 체계 가운데 최대한 불쾌하고 부조화의 모습을 띤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추의 요소를 통해서 대상에 활기를 부여하고 특수한 쾌감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아름다움과 추함의 의미에는 이중적이고 모호한 성질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총괄적인 미적 가치의 범주로 제시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른다고 하겠다.

서양 미학사상 최초로 추(醜)의 미학을 체계화시킨 헤겔학파의 한 사람인 로잔크란츠(Karl Rosenkrantz)는 변증법적인 측면에서 미를 본질적인 것, 그리고 추를 미의 속성으로 파악하면서 미와 추의 상관관계를 풀어나간다. 그에게 있어 추는 이상의 실재적 분석 속에서 구체화되는데 첫째, 추의 미학은 부정적인 이념이다. 둘째, 추의 미학은 이념을 위하여 자유성을 갖는다. 셋째, 추의 미학은 이상을 위하여 총체성을 갖는다는 것이 전제가 된다. 이러한 분석은 추가 전통적으로 미의 대립적인 가치이기는 하지만 미 개념과 불가분한 것으로 인식되며, 부정적·적극적인 추는 자유롭고 총체적으로 이상화된다는 것이다. 그는 변증법을 통해 그의 미학 개념을 완성시켰으며 이를 통해 완전한 자유를 주장하였다. 형이상학적 이상 실현과 총체적인 미의 추구를 위해 미의 대립적·부정적 의미로 추의 영역을 설정하였는데 추의 원리는 미 자체의 이념 속에 존재하며 미와 추의 동화를 통해 진실된 이상성이 완성된다고 보았다. 로잔크란츠에 의하면 추는 부정적인 미(das Negativ-schone)로 불완전한 미를 의미하지는 않고 미의 부정이자 미와 동격의 대립 개념인 것이다. 즉 추의 미학을 설명했던 로잔크란츠는 예

술이 이념의 현상을 그 총체성에 있어서 표현하기 위해서는 현상계에서 긍정적인 것과 뒤엎혀있는 부정적인 것 즉, 추도 빼놓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그의 저서 「System der Wissenschaft(1850)」에서 미 자체는 우월한 미·우연적 미·절대적 미라 할 수 있고 추는 천박함·혐오·풍자이며, 희극적인 것은 천진·익살·위트적 구조로 나누고 있다. 그리고 존재의 영역에 따라 추를 자연의 추(Naturhassliche)·정신의 추(Geisthassliche)·예술의 추(Kunsthassliche)로 분류하였으며, 미적 대상의 형식과 내용 및 이들의 관계인 표현 중 어느 것에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다음의 세 가지 개념으로 분류하였다. 형상의 반대인 ‘불일치’·형상의 반대이면서 구별적 배치를 뜻하는 ‘불균형’·반대적 형상의 개별자인 ‘부조화’라는 세 가지 개념으로 구분되는 ‘물형식성(Formlosigkeit)’, 표현의 ‘부정확성(Inkorrektheit)’, 정신적 자유의 부정을 바탕으로 하는 ‘왜곡(Defiguration oder Verbildung)’으로 나누었고, ‘왜곡’은 다시 ‘비속(das Gemeine)’·‘혐오(das Widrige)’·‘희화’로 구분하였다.

(1) 물형식(Formlosigkeit)

불일치는 형식 내에서 구별되고 물형식에서는 비구별을 통해 나타난다. 물형식은 형식의 적극적 반대 속에서 진행되며, 처음의 결말과는 반대적인 결말을 갖게 되는데 형태의 난잡성은 추한 것이 된다. 또, 불일치와 같은 규범은 모순을 통해 희극적인 것이 되기도 한다. 불균형은 단순한 물형식이 아니라 확실한 비형식으로 균형적인 부재에서 이미 난잡성이 있고 난잡성 속에 있는 형식은 다른 것을 억압 소멸케 한다. 부조화는 추한 것이라도 동일한 구별이 있을 때는 미가 되지만, 우연적 부조화에서는 추한 것이 되며, 균일한 비례는 미적 형태가 아닌 균일함으로 인해 시각적인 지루함을 갖게 된다. 따라서 부조화가 풍부해지기 위해서는 종속적인 대칭과 규칙이 배제되어야 하며, 완전한 모순의 부조화는 흥미를 일

으키게 된다.

(2) 부정확성 (Inkorrektheit)

부정확성은 예술적 법칙성의 위배를 의미하는 것으로 예술적 불완전을 뜻한다.

(3) 왜곡 (Defiguration oder Verbildung)

왜곡이란 규칙적인 조화에서 벗어난 상태 또는 비례의 무시를 뜻하며, 비속· 혐오· 희화를 포함한다. 비속은 적대적인 특질이 과도하게 구현되었을 경우이고 혐오는 무섭거나 소름끼치는 것에 대한 것이며 희화는 예술 작품의 결함을 조롱· 경멸하기 위해 현실을 왜곡되는 방식으로 묘사하는 것이다.

예술에 있어서의 추는 이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 이상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그는 또한 다른 여러 미적 유형도 많은 적든 간에 추를 그 구성 요소로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미적 인상을 더 활기 있게 하고 전체의 생동감을 높이는 자극제로서의 힘을 갖는 것이라고 하였다.

3) 해체주의

1960년대 이후 말과 글을 포함한 언어의 체계적인 구조로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구조주의¹⁸⁾는 인간이라는 주체와 시간 개념을 부정하는 한계점을 갖고 구조주의자들에 의해서 탈구조주의라는 커다란 흐름으로 이어진다. 탈구조주의는 자아와 주체를 중시하는 인간 중심주의를 기본으로 이원론적 사고에서 탈피하여 소외된 타자를 끌어들인다. 이러한 탈구조주의의 탈(脫) 즉, 대립적인 체계에서 떨어져 나옴으로써 모든 형이상학적인 사고를 해체시킨다는 소위 해체주의 이론이 성립된다.

해체주의는 데리다(Jacques Derrida)에 의해 서구 형이상학 전통에 대한 비판으로 시도되었다. 데리다에 의하면 이항 대립 요소들이 서로 대립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두 항목 중 하나는 나머지 개면 속에 내재되어 있으며 ‘해체’라는 명칭은 이런 이분법을 파괴하거나 부정하는 작업을 일컫는 말인 것이다. 즉, 해체주의는 서구 중심주의, 엘리트 중심주의, 로고스 중심주의¹⁹⁾, 남성 중심주의 등의 주체를 해체시키고 ‘탈 중심화’의 개념을 끌어들여 소외된 타자(他者) 즉, 동양, 주변문화, 탈 이성, 광기, 여성 등을 대두시켜 전통적인 서구

18) 구조주의(Structuralism) : 구조는 이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의 형식적 관계체계를 중시하여 구조 안에서 어떤 요소가 독립적 의미를 갖지 않고 그 요소를 얹어매고 있는 형식아래서 오직 의미를 지닌다. 구조주의는 인간의 자아나 주체 등 개인의 사유를 무시한 채 모든 행위를 객관화, 규격화, 조직화시키려 했다. 구조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현대예술은 표현보다 형식, 형태의 강조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김형효 (1993), 『데리다의 해체철학』, 서울 : 민음사, pp.81~84.

19) 로고스 중심주의(Logocentrisme) : 데리다는 음성을 문자보다 우위에 위치시키려는 사고방식을 로고스 중심주의 또는 음성중심주의(Phonocentrisme)라고 부르는데 이는 전통적인 형이상학의 전제가 되었다.

이광래 (1989), 『해체주의란 무엇인가』, 서울 : 교보문고, p.375.

형이상학에 나타난 이분법을 해체시키는 것²⁰⁾으로, 동일정보다는 차이를 포착하기 위하여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지배 문화로부터 소외되고 잊혀져 왔던 타자를 인정하며 ‘불안정’ 함과 ‘불안’을 있는 그대로 포용하려는 것이며 나아가서는 전체성과 구조화된 체제에 억압받는 개체의 해방과 고정된 사고의 틀을 벗어나 열린사회를 지향하는 것이다.²¹⁾

이러한 해체주의를 설명하기 위한 개념적 특성으로는 인용, 텍스트와 글쓰기, 차연, 보충, 산중, 혼적, 현존과 부재, 상호텍스트성을 들 수 있으며, 이 개념들은 독립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쇄 고리로 작용되고 있다. 그 중 디자인 개념에 적용 가능한 대표적인 개념적 특성으로는 차연, 상호텍스트성, 불확정성, Dis·De 탈현상을 들 수 있다.

(1) 차연(Différences)

차연(差延)이란 프랑스에서 이전에는 없었던 단어로 데리다에 의해 다르다, 구별하다의 뜻을 지닌 영어의 differ과 연기하다의 defer의 뜻을 동시에 지닌 불어의 동사 differer에서 difference라는 신조어로 만들어졌다. 데리다가 만들어낸 차연은 세 가지 의미를 갖는데 이는 공간성과 연결된 의미로서 다르다와 훌뿌리다 이고 이에 반해 시간에 있어서의 차이를 가리키는 연기하다의 의미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따라서 차연은 공간적인 차이의 개념에 시간 개념이 도입된 것으로 차이가 지연되는 작용을 가리키는 것이다. 즉, 시공간의 초월과 수평 수직의 대립관계, 시공간의 개념 해체 등을 의미한다.

20) 이현아 (1998), 「해체주의 복식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07.

21) 김지연 (1996), 「복식에 나타난 해체주의 양식」,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1.

(2)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

상호텍스트성이란 텍스트가 자율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출발하며, 텍스트는 서로 교차하여 무한히 확장할 수 있는 조직적인 특성을 지니므로, 독립하여 존재하지 못하고 끊임없는 상호작용으로 그 영역을 넓혀 나간다. 즉, 이분법에 대한 대항으로 두개의 극단적인 텍스트의 어느 쪽에도 편중되지 않은 채 그 텍스트 사이의 공간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²²⁾ 이는 반복 혹은 보충이라는 개념과 함께 작용하여 경계가 존재하는 성, 시간, 장소, 목적 등 모든 것을 해체하여 범주가 없어지도록 서로의 흔적을 받아들임으로써 영역 해체의 근거가 되고 있으며 영역을 초월하여 존재한다.

(3) 불확정성(Undecidability)

데리다는 의미란 주관에서 비롯된 허구적 구조물일 뿐이며, 불확정성이란 모든 체계가 개방성을 띠어 무한히 확장되어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²³⁾ 언어는 그의 체계 속에서는 불확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며, 이러한 언어로 표현되려는 절대적 진리나 의미는 사실상 부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한다고 믿는 것은 환상, 자취, 또는 유사일 뿐이고 결국 리얼리티 역시 허위이거나 은유일 뿐이라는 가능성이 생겨나게 된다. 따라서 불확정성이란 문화의 대타적 특이성, 우연성, 불투명성들이 무수히 존재하며, 불안정과 제멋대로의 코드들의 대립을 의미한다. 이러한 불확정성은 다가올 지금이란 시간의 상황에서 대자적 보편성, 즉 새로운 방식과 규준을 대비하기 위함이다. 요컨대 지금은 불확정성은 다가올 지금의 새로운 확정성에 대한 개방적 자세일 뿐이다.

22) Llewelyn, John (1988), 『데리다의 해체주의』, 김세중 · 서우석 역, 서울 : 문학과 지성사, p. 102.

23) 김성곤 (1989), 『탈모더니즘 시대의 미국문학』, 서울 : 서울대 출판부, p.20.

(4) Dis·De 탈현상

탈구성(Dis-composition)은 분해·분석된 텍스트들이 무작위로 상호관계를 이루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구성방식을 파괴하는 것으로 탈중심화 현상에서 확실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탈중심(De-centralize)은 무가치하게 느껴지고 소외된 것, 타자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함께 일체의 중심주의를 해체함이다. 이러한 탈현상은 이성의 절대성을 인정하지 않고 종래의 완전성에 대한 부정으로 탈중심, 탈구성, 위치전환으로서의 전위(dislocation), 일정 규칙이나 룰의 지배를 받지 않는 무질서한 디자인의 원리를 제시한다.

3. 미적소외에 관한 선행 연구 고찰

미적소외를 다룬 선행연구로는 현대복식에 나타난 미적소외에 관한 연구²⁴⁾에서 이건희는 미적소외를 예술가의 소외에서 비롯된 예술의 주관성으로 보고 해체주의, 선(禪)미학, 추미학을 통해 이를 고찰하였다. 그 외 소외를 주제로 한 연구는 많으나 대부분 소외의 심리적 부분이 작품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경우를 주로 다루었다.

최희숙²⁵⁾은 소외를 현대문명 속에서 파괴되어 가는 인간의 모습이 자유롭고 독자적인 형상으로 나타난다고 보고 이를 통한 패션일러스트 작품을 제작하였다. 정희균²⁶⁾은 현대의 소외는 인간관계의 물화(物化)현상이 사회전반에 확산되는

24) 이건희 (2001), 「현대복식에 나타난 미적 소외에 관한 연구 : Rei Kawakubo의 작품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5) 최희숙 (1997), 「소외를 주제로 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6) 정희균 (1996), 「현대산업사회의 문화적 소외에 대한 도자공예의 의의와 역할」, *가야*

총체적 성격과 유적 존재로서의 인간성이 철저히 와해된다고 했다. 권지혜²⁷⁾는 소외를 신체적 정신적 결함이 있는 이들만이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을 지배하는 무의식의 의식이라고 보았다.

대학교 논문집 5권, pp. 369~385.

27) 권지혜 (2001), 「소외(疎外)심리의 회화적 이미지에 대한 연구 : 작품 연구 중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Ⅲ. 스트리트 헤어스타일에 나타난 미적 소외

스타일이란 형식 전체를 특징짓고 있는 독자적인 양상을 말하며 그것이 동시에 작품을 꿰뚫는 작가 또는 그 시대, 유파, 민족의 예술이념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헤어스타일의 구상, 계획에서부터 시술과 그에 의한 결과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인 헤어디자인은 공간에 형태를 만드는 조형예술로 이미 예술의 한 분야로 인정받고 있다. 헤어디자인은 모발을 매개체로 조형적 요소를 활용하여 미적인 질서를 구성하는 것이며 그 결과를 흔히 헤어스타일이라 한다. 헤어스타일은 신체를 장식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얼굴의 형태나 유행에 따라 여러 형태로 변화한다.

헤어스타일은 형식적, 표현적 특성뿐만 아니라 시대, 민족, 사회·문화적 배경 등이 내재된 미의식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헤어스타일에 나타난 형식적, 표현적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헤어스타일에 나타나는 미의식을 2004년의 스트리트 헤어스타일을 통해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스트리트 헤어에 나타난 미적소외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2000년대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알아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000년대는 산업화 시대로 일컬어지던 20세기를 마감하고, 이른바 '뉴 밀레니엄'으로 불리는 21세기의 거침없는 파도는 매우 빠르게 기존의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다. 21세기의 가장 큰 특징은 다변화로 볼 수 있는데 그 원인은 첫째, 세계화(Globalization)이다. 종교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문화의 획일화가 불가피하게 진행되는데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반문화²⁸⁾현상이

28) 반문화(反文化, counterculture)는 사회의 지배적인 문화에 정면으로 반대하고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하위문화(subculture)로서 대항문화(對抗文化)라고도 한다. 지배적인 가치에 대한 직접적인 대립, 권력구조에 대한 대립, 그리고 지배적인 가치와 얽혀 있는 유형화된 교환에 대한 대립으로 나타난다.

나타나면서 개성이 존중되고 각 지역 또는 민족의 정체성이 더욱 중요하게 평가되었다. 동시에 가치관의 다양화, 상대적 가치관이 수용된다. 둘째, 인터넷의 폭발적인 확산으로 인한 디지털의 중심에 있는 정보네트워크가 세계적인 차원으로 확대된 정보화를 그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인터넷으로 인해 정보나 지식이 네트워크를 통해 공유됨에 따라 물리적 공간이 사이버 공간으로 바뀌면서 지역의 의미가 퇴색되고 사이버 공간에서의 정보교환은 문화에 있어 중심과 중앙의 개념을 무의미하게 한다. 이 역시 획일화를 거부하고 다양성을 수용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셋째, 퓨전과 혼혈의 문화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로 인해 학문과 과학, 예술 각 분야의 경계가 무너지고 광범위하고 자유로운 퓨전이 이루어져 문화적 영토를 넓혀 나간다. 이러한 문화적 퓨전, 혼혈은 이론적이고 과학적인 결합이라기보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원동력이 된다. 이는 이미 기존의 음악, 영화, 방송, 문학, 신문 등 다양한 문화 형태들이 이미 통합 분화되는 등 다문화 경향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2000년대를 특징지을 수 있는 하나의 용어가 바로 '엽기(獵奇)'다. 엽기의 사전적 의미는 '기괴(奇怪)한 것이나 이상한 일에 강한 흥미를 가지고 찾아다니는 일'이지만 2001년 중반이 되어서는 '기괴하고 이상한 것'의 범위를 넘어 이제는 사회·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사전 본래의 뜻을 뛰어넘어 가볍거나 무겁거나, 썰렁하거나 황당하거나, 허탈하거나 재미있거나 모두 엽기로 해석된다. 이러한 엽기 현상의 원인은 정보화에 따른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과 획일화된 기성문화의 틀에서 벗어나 보려는 비주류문화, 즉 신세대로 불리는 청소년들의 도전의식이나 일탈의식에서 찾는다. 기존의 문화가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하향식인 반면, 요즘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거나 교류하는 평형식 문화로 전환되었고 이는 곧 신세대들의 소외의식으로 연결된다.

이러한 소외의식에 기인한 엽기 문화의 특성은 타인과의 분리된 자아를 인식

함에 있다. 이로 인해 철저히 자기만을 위한 트렌드를 새롭게 창출하고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강조하여 타인과 다른 것, 특이한 것, 개성 있는 것 등이 미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등장한다. 이는 기존의 보편성이 내재된 미의 판단 기준과는 확연히 다른 것이라 할 수 있다.

헤어스타일에 있어 전통적이고 보편적인 미적 기준이라 함은 디자인의 원리에 의해 구성된 스타일로 볼 수 있다. 디자인의 원리란 조형의 시각적 요소들이 특정한 효과를 성취하기 위하여 어떤 방법으로 결합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하나의 계획으로 대상의 부분과 부분, 부분과 전체가 어떠한 질서를 가지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통일, 조화, 균형, 강조 등의 디자인 원리는 헤어스타일에서도 사용되어지며 통일은 하나의 스타일을 일관된 규칙으로 단일화, 동질화 시키는 것을, 조화는 유사한 디자인 요소들 간의 미적질서를, 균형은 형태상의 시각적, 정신적 안정감을, 강조는 어떤 주변조건에 따라 특정한 부분을 강하게 하여 변화를 주는 요소를 의미한다. 이러한 원리들은 독립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갖고 형식적 요소나 감각적 요소의 영향에 의해 총체적으로 나타나 디자인의 독창성을 뒷받침하는 객관성과 보편성을 제공한다. 객관성과 보편성은 곧 사회가 제시하는 미적 기준을 반영한다고 이해할 수 있으며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특정 시대를 대표하는 유행을 들 수 있으며 이는 특정 시대의 공통된 미의식을 나타낸다.

현대의 헤어스타일은 기존의 보편적 전통질서를 파괴하기 시작하면서 변화하는 시대정신과 대중문화의 혼재적 양상으로 인해 헤어스타일은 더욱 다각화되어 가고 있다. 객관적인 성향보다는 주관적이거나 상대적 성향의 것으로, 파격과 모방의 전위적 경향의 미적 실체는 모든 가치의 부정과 파괴에서 비롯된 소외효과로 나타난다. 헤어스타일에 나타난 소외의식을 미적소외로 보고 미적소외의 특성이 나타난 아방가르드, 추(醜)의 미학, 해체주의의 개념적, 표현적 특성을 통합

하여 공통된 개념으로 유추하고 이를 통해 2004년 스트리트 헤어스타일을 분석하였다. 2004년 스트리트 헤어스타일에 나타난 미적소외를 이질적 요소의 공존을 의미하는 ‘혼용’, 규칙적인 조화나 비례의 무시를 뜻하는 ‘왜곡’, 기존의 질서나 형식의 ‘파괴’, 완전성에 대한 부정으로 임의성을 내포하는 ‘불완전’, 정형화된 형태의 부정으로 나타나는 무질서한 경향인 ‘비정형’의 다섯 가지 특성으로 분류하였다.

1. 혼용

혼용은 아방가르드의 특성 중 인간 정신의 해방을 목표로 한 초현실적 실험주의의 시간과 공간 등 이질적 요소를 초월한 대립적 양식의 혼합현상에 나타나고 있다. 대립적 양상의 혼합현상은 추의 미학에서는 형상의 반대인 불일치, 형상의 반대이면서 구별적 배치를 뜻하는 불균형, 반대적 형상의 개별자인 부조화의 세 가지 개념을 포함하는 물형식성으로 볼 수 있으며 주로 이질적 요소의 결합으로 나타난다. 해체주의에 있어 예술 양식적 차용을 허용함으로써 서로의 차이를 그대로 인정하거나 서로의 혼적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차원에서 나타나며 이는 시간의 초월과 수평 수직의 대립관계, 시공간의 개념 해체 등을 의미하고 과거, 현재, 미래의 결합 또는 복고풍의 형식으로 과거의 양식을 현대적으로 재조명한다는 데서 공통적 특성을 유추해 낼 수 있다. 따라서 혼용은 시·공간의 초월, 대립적 요소의 공존, 영역간의 경계 해체 등의 개념으로 설명 될 수 있으며 하나의 스타일 내에 이질적 요소가 공존함을 의미한다.

헤어스타일에 있어 시간의 혼용은 과거와 현재의 스타일이 공존하는 복고적인 스타일로 대표적인 예로 레트로 경향을 들 수 있다. 레트로란 과거의 아름다움으

로 회귀하려는 복고적 패션의 풍조를 말하는 Retrospective를 생략해서 레트로라고 부른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뜻으로 리바이벌과 같이 사용하고 있으나, 엄밀히 말하면 지나간 시대의 유행을 오늘을 사는 사람들의 기호에 맞게 재수정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 이 과거와 현재의 절충은 복고풍으로 부활한다.

<사진 1, 2>는 1950년대 유행했던 헵번스타일²⁹⁾에 그 기원을 둔 짧고 불규칙한 뱅헤어와 1970년대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운동과 함께 나온 자연스러운 웨이브가 잘 조화된 것으로 시간의 혼용을 볼 수 있다. 이는 과거 여성들의 헤어스타일 거의 대부분이 스트레이트의 질감을 가졌었던 것에 비해 현재는 웨이브가 스트레이트의 질감보다 더 선호되고 있어 전형적인 여성 헤어스타일에 대한 미의식의 변화를 읽을 수 있었다.

헤어스타일에 나타난 공간의 혼용은 지역적 특성에 영향을 받는 이질적 문화 요소들의 공존으로 에스닉, 레게, 힙합 등의 스타일로 나타난다. 공간의 혼용이 나타난 대표적인 예로는 레게(reggae) 스타일을 들 수 있는데 레게는 1968~1969년 카리브해 자메이카에서 발생한 전통적인 흑인 댄스뮤직에 미국의 소울뮤직 등의 요소가 결합되어 형성되었던 새로운 형태의 대중음악에서 유래한 헤어스타일이다. 아프로 펌(afro perm), 콘로우(cornrows), 브레이즈(braids), 드레드 락(dreadlock) 등 다양한 흑인들의 헤어스타일이 현재 우리나라 스트리트 헤어스타일에도 나타나는 것은 공간적 요소 즉 이질적 문화의 혼용으로 볼 수 있다.

<사진 3,4>는 브레이즈, <사진 5>는 드래드 락이라 불리는 한국 사람에게는

29) 헵번스타일 : 1946년 영화 「로마의 휴일」에서 오드리 헵번(Audrey Hepburn)이 유행시켰던 헤어스타일로 당시 우아한 여성의 표상이며 섹시함의 대명사였던 긴머리를 짧게 컷한 남성적이고 활동적인 보이쉬한 모습의 숏컷트 형태.

가장 하기 힘든 헤어스타일로 우선 흑인머리처럼 하기 위해 아프로 폼을 먼저 하고 인조 머리를 같이 붙여 말아 주는 형태이다. 흑인남성들이 머리를 길게 늘려 머리카락을 여러 가닥을 같이 말아서 꼬아 내린 흑인문화가 혼용된 경우이다. 아프로 폼은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스타일이 된다. 아프로 헤어스타일(사진 6)은 스트리트 헤어스타일에서 주로 호일 폼³⁰⁾(사진 7)이나 봄매직³¹⁾(사진 8)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 역시 이질적 문화의 혼용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헤어스타일이 스트리트 헤어스타일에 나타나는 것은 수용자의 미적 가치 기준이 과거에 비해 개방적이라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 외에도 하나의 디자인 내에 형태, 질감, 칼라 등 이질적인 디자인 요소가 공존하는 것을 혼용이라 할 수 있다. <사진 9>는 아주 가벼운 질감과 무거운 질감이 공존하는 경우로 아주 가볍게 커트된 샷리한 스타일에 블런트로 커트되어 최대의 무게감을 주어 서로 이질적인 요소가 하나의 디자인 내에 혼용이 된 경우이며, <사진 10>은 일반적으로 투톤(two-tone)이라고 불리는 염색기법인데 일반적으로 비슷한 색상에 비슷한 명도를 사용하되 약간의 차이를 주어 디자인을 다양화하려는 의도로 사용이 되고 주로 어두운 색을 헤어라인 주변이나 아래쪽에 위치시켜 디자인의 안정감을 더해주고 탑 부분에 밝은 색을 위치시켜 볼륨과 확장감을 준다. 그러나 이 디자인의 경우 색상과 명도가 극심한 반대적 요소를 가지고 있고 그 배열 또한 개성적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배열의 특이성 보다는 대조적 요소의 공존이 더 눈에 띄는 특성으로 보임으로 혼용으로 분류한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혼용은 이질적 요소의 공존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이질적 요소는 반대의 개념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격적으로 다른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양면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30) 호일폼(foil-perm)은 은박지로 감싸서 아주 가늘게 질감을 만드는 폼이다.

31) 봄매직(bomb-magic)은 기존의 스트레이트닝 아이론을 이용해 모발을 펴는 것을 매직이라고 불렀는데 짧은 길이에서 사방으로 뻗치게 매직을 하는 폼



〈사진 1〉 각기 다른 스타일이 하나의 디자인에
혼용된 스타일



〈사진 2〉 50년대의 짧고 무거운 뱅헤어와
70년대의 웨이브가 혼용



〈사진 3〉 헤어스타일에 나타나는 지역적
· 인종적 특수성이 혼용에 의해 이질적 공간에서
나타난 브레이즈



〈사진 4〉 흑인문화의 영향에 의한 브레이즈



<사진 5> 흑인문화의 영향에 의한 드레드락



<사진 6> 흑인의 모질을 재연한 아프로 펌



<사진 7> 아프로 헤어스타일을 응용한 호일펌



<사진 8> 아프로 헤어스타일을 응용한 봄매직



〈사진 9〉 가벼움과 무거움의 이질적 질감이
하나의 스타일에 공존



〈사진 10〉 밝고 어두운 이질적 칼라가 하나의
스타일에 공존

2. 왜곡

왜곡의 특성은 아방가르드의 특성 중 미래적 역동주의에서 보여지는 제도권의 형식주의적 미의 실체를 정면으로 부정하여 인공적이고 비일상적인 미를 추구한 데서 그 예를 찾을 수 있으며, 추(醜)의 미학에서는 왜곡으로 나타나 규칙적인 조화에서 벗어난 상태, 비속, 혐오, 희화를 의미한다. 이는 자의적이고 의도적인 과도성의 결과로 희극적인 기괴함, 괴상함 등에서 일정한 추의 형식이 존재하며 추함이 미적인 이념으로 전환되어 이탈과 비례의 무시로 표현된다. 해체주의의 Dis-De 탈현상 중 규칙이나 룰의 지배를 받지 않고 왜곡과 과장의 형식을 보여주는 특성을 종합하여 그 공통적 특징을 ‘왜곡’이라 한다. 즉 규칙적인 조화에서 벗어난 상태 또는 비례의 무시로 기괴함, 괴상함 등에서 존재하며 의식적인 과도성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인체의 비례를 무시하거나 디자인 내에서의 부분과 부분에 대한 질서와 조화가 무시함으로써 인체에 대해 주관적인 가치판단을 가능하게 한다.

인체의 비례를 무시한 대표적인 예로 빅 바운스(Big bounce)헤어가 있다. 정상적인 몸과 두상의 비례를 완전히 무시한 것으로 단어 자체의 뜻처럼 모발을 일으켜 세워 머리 사이즈를 극대화시킨 스타일이다. 주로 헤어쇼나 패션쇼에서만 볼 수 있던 전위적인 표현이 스트리트에서도 나타나고 있다(사진 11,12).

디자인 내에서의 질서와 조화가 무시된 스타일로는 펑크(Punk) 스타일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속어로 ‘시시한 사람, 재미없는 것, 불량소년 · 소녀, 킷내기’라는 의미로 펑크 패션이 발생한 것은 미국이지만 이를 정착시킨 것은 런던의 젊은이들이다. 런던의 펑크 패션은 1970년대 후반에, 대부분 무직인 노동계층의 십대에 의한 권위체제에 대한 저항으로 나타났다. 머리를 갖가지 색으로 염색하고 기분 나쁜 메이크업을 한다. 개의 목끈, 안전핀, 면도기를 액세서리로 하며

고무나 플라스틱제 팬츠, 마이크로 미니스커트, 플라스틱과 네트 셔츠, 저속한 메시지가 프린트된 티셔츠 등을 착용한다. 극히 일부 젊은이들에 한정된 핑크 패션은 점차 일반 패션에 영향을 주어 안전핀이나 면도칼의 액세서리가 인기를 끌었으며, 헤어스타일에서는 머리카락을 뽕족하게 고정시키거나 모발을 완전히 제거하고 두피에 그림을 그리기도 하였다.

이러한 핑크스타일에서 볼 수 있는 규칙적인 질서와 조화의 무시는 스트리트 헤어에서도 볼 수 있다. <사진 13>는 핑크스타일 중 불규칙한 길이의 머리를 뺏뺏이 세운 스파이키(Spiky) 스타일이고 이를 응용한 스타일들도 보인다. <사진 14>과 <사진 15>은 스파이키 스타일을 현재의 흐름에 맞게 표현한 경우라 할 수 있다. 모발은 자연스럽게 늘어뜨려지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되어진 대중으로부터의 이탈을 통해 표현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짧고 단정하고 깔끔함만을 추구하던 남성헤어스타일에 큰 변화를 주었다. 이것이 다시 보편화되면서 요즘에는 오히려 스파이키 스타일을 응용한 스타일을 더 많이 볼 수 있다.

<사진 16>은 기존의 헤어스타일이 잘려진 모발의 길이 배열에 의해 생기는 질감과 양감에 의해 형태가 결정되는 것과는 달리 스킨헤드(Skin Head)의 변형으로 두피에 그림을 그리는 대신 더 짧게 잘려진 부분에 의해 원하는 형태를 표현하고 있다. 이는 모발이 줄 수 있는 형태 이외의 형태를 만들어 냄으로써 개성 표현의 도구로 사용된다.

이 외에도 부분과 부분의 질서와 조화의 무시가 표현된 예로는 의도적으로 사용된 불규칙적인 길이의 모발이 전혀 새로운 형태의 헤어스타일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경우(사진 17)와 하나의 디자인 내에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는 요소를 결합하여 부조화 속의 조화를 추구하는 형태를 들 수 있으며(사진 18), 개개의 익숙하고 친근한 요소들을 기존의 또는 이미 우리가 익숙한 상황으로부터 이탈시켜 무의미하게 배치시킴으로써 기존의 이미지를 왜곡시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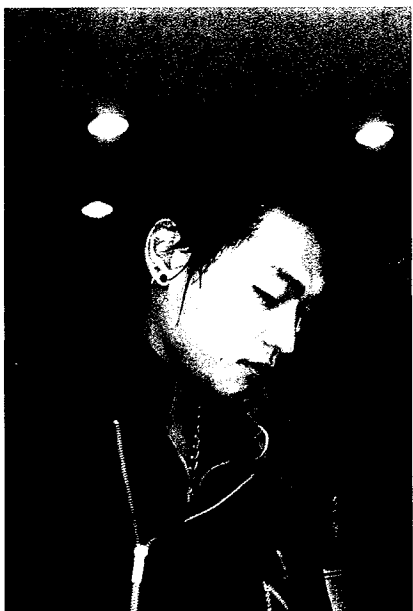
이상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왜곡은 자의적이고 의도적인 과도성의 결과로 표현되어지는 기괴함이나 괴상함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스타일은 특징이 있다. 이는 과거 미의 기준이 보편성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면 현재의 미의 기준이 특이성에 그 가치를 두고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내 보이는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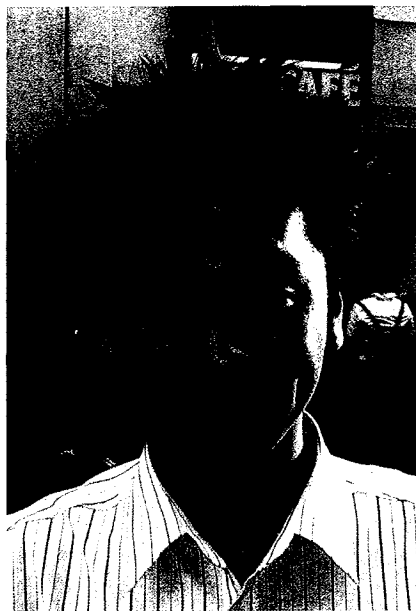
〈사진 11〉 헤어스타일의 형태를 과장



〈사진 12〉 헤어스타일과 인체와의 비례 무시



〈사진 13〉 불규칙적인 길이를 세운
스파йки 스타일



〈사진 14〉 기존 헤어스타일의 조화와
규칙성을 무시한 스타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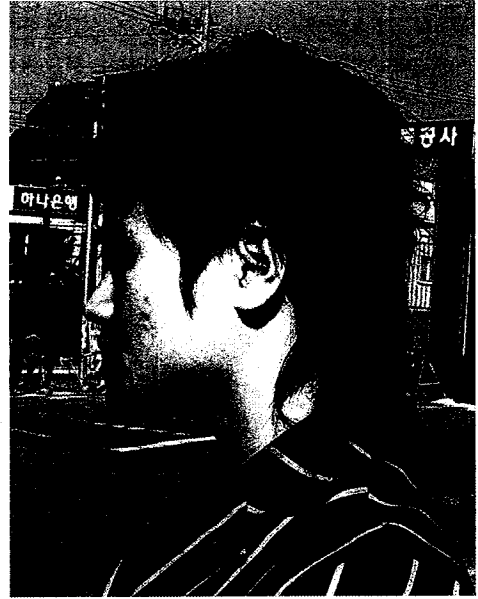
〈사진 15〉 의도적 과도성에 의한 스타일링



〈사진 16〉 기존 헤어스타일의 형태
표현 방법을 무시



〈사진 17〉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불규칙한 길이에 의한 스타일



〈사진 18〉 짧은 길이와 긴 길이가 부조화 속의 조화를 이루는 헤어스타일

3. 파괴

파괴는 기존의 질서 또는 형식에 대한 저항으로 헤어스타일에 대한 고정 관념을 파괴한다. 이는 아방가르드의 소외적 적대주의에 나타나는 미적 실체로 모든 가치의 부정과 파괴로 해석되어지며 고상한 취미의 부정으로 반 부르조아적 저항성과 반 권위주의적 해학성을 들 수 있다. 추(醜)의 미학에서는 물형식성을 기존 질서의 파괴로 보고 일반적 범주를 무시한 경우와 해체주의에서 상호텍스트성이 가지는 이분법의 철저한 해체에 의한 남성과 여성의 성에 대한 고정관념의 해체, 소재의 해체 등의 방식에서 나타난다. 이것은 서로 다른 텍스트를 병행, 인용함으로써 기존 사회규범으로서의 이분법적 표현방법을 무너뜨리고 타자를 수용하는 열린 사고를 제시한다. 이상에서 나타나는 공통적 특성을 종합해 보면 저항성에 의한 파괴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소재의 파괴, 전통적인 성의 개념 파괴, 형태, 질감, 색의 파괴 등으로 나타난다.

소재의 파괴는 헤어스타일에 모발 이외의 재료가 사용되었던 경우이다. 과거 모발 이외의 재료는 모발을 고정시키거나 장식적인 효과를 주는데 그 목적이 있어 모발에 부착한 장식품으로서의 기능을 하였으나 이 경우는 모발 이외의 재료를 사용하였으나 이것이 모발로서 인식되어 장식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헤어스타일에 있어 장식적 소재와는 확연히 구별된다. 이 때 헤어에 사용된 모발 이외의 재료를 오브제로 보고 이것이 주는 전위적인 의미는 소재의 적절성에 대한 기존 관념의 거부, 즉 전통적인 소재가 아닌 이질적인 재료를 과감히 도입하여 예기치 않은 충격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이것은 기존의 헤어스타일에 도전하는 이색적인 미에 대한 추구로써 재료가 갖는 한계성을 개방함으로써 재료의 현대적 성격을 강조한다.

레게스타일의 한 종류인 콘로우(cornrows)라는 스타일은 주로 모발 이외의 소

재인 털실 또는 색색의 가모를 모발과 함께 땅아서 원하는 길이나 양을 결정한다. 그 외의 재료로는 장식성을 더 높이기 위한 비즈나 구슬 등이 사용되기도 한다. 스트리트 헤어에서는 모발 이외의 소재가 전체 디자인에 사용되어 과격한 이미지를 보이기보다는 부분적으로 사용된 경우를 볼 수 있다(사진 19). 모발의 가닥을 땅아서 이질적인 소재를 부착하는 경우 외에 실리콘을 이용해 다른 색상의 모발을 가닥가닥 모근 근처에 이어 붙이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 경우는 모발 이외의 소재로 잘 느껴지지 않지만 자신의 모발을 이용하지 않고 이질적인 소재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헤어스타일의 소재에 대한 고정관념의 파괴로 볼 수 있다(사진 20).

성의 파괴는 전통적인 성의 개념이 남성과 여성의 이분법의 파괴로 앤드로지니(androgyny) 즉 양성성의 경향으로 나타난다. 양성적 이미지란 헤어스타일이 이성의 이미지를 일부 또는 전체에 도입한 경우로 남성적 요소와 여성적 요소가 같이 나타나기도 하고 남성의 여성화 또는 여성의 남성화로 나타나기도 한다. 전통적인 성의 개념이 파괴되어 남성의 여성화 현상으로 여성만이 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던 펌을 한다든가(사진 21) 머리를 길게 기르거나(사진 22) 묶는 스타일(사진 23)이 보여지고 있다. 여성의 남성화 현상은 전형적으로 남성적 요소라고 고정관념화 되어 있던 아주 짧은 헤어스타일(사진 24) 또는 구레나룻 부분을 강조한 헤어스타일(사진 25, 26)이 나타난다. 또는 헤어스타일에서 남성적 또는 여성적 요소가 느껴지지 않는 중성적 이미지(사진 27)도 볼 수 있다.

현대에 이르러 성 역할의 변화, 자유로운 감성과 개성의 추구, 세계화와 다원주의 시대로의 돌입 등 사회·문화적 환경은 전 세계 문화를 보편화 시켰을 뿐만 아니라 각 나라의 전통성은 다양한 주제와 양식의 매체 수용을 통해 보여지고 있다. 이 결과 전통적인 미의식이나 가치 체계가 붕괴되고 각 문화 영역들이 상호교류하면서 크로스오버라는 신문화로도 해석될 수 있으며 성의 파괴는 현대

헤어스타일의 크로스오버 경향이라 할 수 있다.

형태의 파괴는 기존에 헤어스타일의 형태는 좌·우의 대칭을 기본으로 두상의 곡면을 따라 둥근 형태를 띠거나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던 고정관념을 과감히 파괴한다. 스트리트 헤어에 나타나는 형태의 파괴는 주로 뾰족하게 세워진 남성들의 헤어스타일에서 가장 쉽게 적용되고 있다(사진 28,29).

질감의 파괴 역시 기존의 헤어스타일에 가지는 모발의 질감에 대한 고정관념을 파괴하고 기존의 스트레이트, 웨이브, 컬로 분류되던 질감 이외의 질감이 헤어스타일에 사용되어진다(사진 30,31).

다음으로 색의 파괴는 기존의 한국인의 모발 색 이외의 색 모두를 색의 파괴로 보기에는 이미 한국의 염색시장은 아주 광범위하게 발달되어있다. 따라서 아주 인위적이고 인공적인 칼라로 한정한다. 즉 인간의 자연 모발 색에서는 볼 수 없는 색상이 사용된 경우이다. 주로 한색계열, 강렬한 원색계열, 또는 파스텔 칼라 등이 그 예이다(사진 32,33).

이상에서와 같이 파괴는 기존의 질서나 형식 그리고 고정관념에 대한 저항으로 나타난다.



〈사진 19〉 장식적 효과를 위해 모발 이외의 소재를 사용



〈사진 20〉 장식적 효과를 위해 가모를 사용



〈사진 21〉 여성적 요소로 생각되는 펌을 남성의 헤어스타일에 사용



〈사진 22〉 여성적 이미지의 남성 헤어스타일



〈사진 23〉 여성만의 헤어스타일이라 생각되는
포니테일을 한 남성 헤어스타일



〈사진 24〉 남성적 요소라고 생각되는 아주 짧은
길이를 이용한 여성 헤어스타일



〈사진 25〉 남성적 이미지가
사용된 여성 헤어스타일



〈사진 26〉 중성적 이미지의 헤어스타일



〈사진 27〉 중성적 이미지의 헤어스타일



〈사진 28〉 기존의 전체적으로 둥글고 완만한 형태를 파괴한 스타일링



〈사진 29〉 기존의 형태를 파괴한 헤어스타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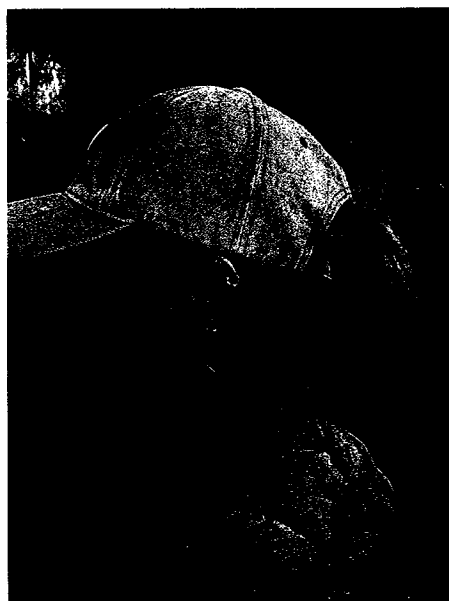
〈사진 30〉 헤어스타일의 질감에 대한
고정관념 파괴



〈사진 31〉 정형화된 헤어스타일의 질감 파괴



〈사진 32〉 파스텔 칼라의 사용



〈사진 33〉 원색의 칼라 사용

4. 불완전

완전성에 대한 부정으로 시술자 또는 시술계획을 무시한 임의성 또는 우연성에 의한 스타일을 불완전으로 분류한다. 완전한 백지의 상태에서 그 상황을 몸으로 느끼고 대면함으로써 자동적으로 그려지는 아방가르드 디자인의 세계는 과거 디자인과 완전히 단절된 우연한 형태인 것이다.³²⁾ 이것은 추(醜)의 미학 특성 중 부정확성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부정확성은 예술법칙성의 위배에 따른 예술적 불완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통일성과 일관성 보다는 임의성이나 우연성으로 표현하여 미완성 혹은 불완전의 미를 추구한다. 해체주의의 불확정성에서도 공통된 특징을 찾을 수 있다. 불확정성이란 모든 체계가 개방성을 띠어 무한히 확장되어 다의적으로 해석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문화의 대타적 특이성, 우연성, 불투명성들이 무수히 존재하며 불안정과 제멋대로의 코드들의 대립을 의미한다. 즉, 우연과 임의성에 의한 자유로운 스타일은 정형화된 형을 탈피함으로써 불완전해 보이는 스타일을 허용하고 개인의 주관적인 미를 표현하였다.

미완성과 불완전의 단계는 과거 유럽에서 시작된 기하학적인 커트의 깔끔함이나 완성된 느낌이 아닌 미완성의 덜 완벽한 것으로 나타난다. 정형화된 형태가 언제나 단정하고 정리된 느낌은 있지만 이미 형태가 결정되어 있어 스타일링에 변화가 제한적이었던 반면 현재의 헤어스타일은 다양한 스타일로의 변화가 가능하다. 최근 스타일 메이킹에 있어서도 기본 형태를 그대로 두고 볼륨과 길이 등을 적절히 활용해 어떻게 다른 얼굴로 비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헤어컷이 수많은 버전으로 스타일링 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중요시 되고 있다. 이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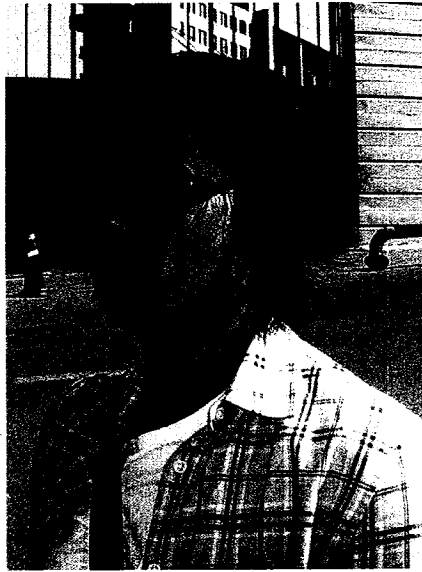
32) 김문숙, 엄소희 (2000), 「현대 복식에 표현된 아방가르드의 유형별 특성 연구」, 복식문화연구학회, 8권2호, p.329.

한 스타일의 변화는 가볍고 유동적인 형태에서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가벼운 질감이 요구되어 질감위주의 형태로 변화되어 가고 있으며 이는 잠재적 형태로 존재하여 폭넓은 변화를 허용한다. 가벼운 질감은 걷고 움직일 때마다 선으로 표현된 모발의 가닥들이 흔들리며 정지된 고정미가 아닌 율동감을 주어 시각을 자극한다.

주로 샀기한 느낌의 스트록 컷(stroke cut)³³⁾이나 디스커넥션 컷(disconnection cut)³⁴⁾에 의한 가벼운 커트가 기본이 되어 왁스를 비롯한 기타 스타일링 제품을 이용해 계획되지 않은 움직임과 형클어져 보이는 스타일로 표현된다. 샀기한 느낌에 의한 거친 질감은 과거 전통적인 헤어스타일에 비해 다소 손질을 더 필요로 하는 것처럼 생각되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불완전으로 표현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오히려 커트 후의 마무리 손질의 다양성으로 인해 특정한 완성형으로 결정되어질 수 없다는 측면에서의 불완전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가벼운 느낌의 헤어스타일은 움직임이 크기 때문에 스타일링 후에도 유동적인 변화를 거듭하기 때문에 하나의 고정된 스타일로 볼 수 없다(사진 34,35,36).

33) 스트록 컷(stroke cut) : 레이어를 많이 내고 질감을 살려 샀기한 스타일로 커트하기 위한 한 가지 기법으로 가위로 모발을 불런트하게 자르는 것이 아니라 모발을 툇툇치면서 가볍게 커트하는 방법

34) 디스커넥션 컷(disconnection cut) : 층을 연결해 자르는 것이 아니라 속은 짧고 겉은 길게 또는 위쪽은 길고 아래쪽은 짧게 자르는 등 부분과 부분의 길이를 연결시키지 않고 잘라 개성을 강조한 커트



〈사진 34〉 사기한 질감으로 스타일의 변화가
용이한 헤어스타일



〈사진 35〉 정형화된 형을 탈피하여 우연과
임의성에 의한 헤어스타일



〈사진 36〉 가볍고 유동적 형태의 헤어스타일

5. 비정형

정형화된 헤어스타일의 부정으로 탈중심, 탈구성, 위치 전환의 형식으로 나타나며 아방가르드의 초현실적 실험주의에서 전통의 미와는 반대되는 착오성, 변용, 전위의 경향으로 파악할 수 있다. 추(醜)의 미학에서 나타나는 몰형식의 표현적 특성 중 하나로 보고 미적 질서를 파괴한다는 측면에서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해체주의의 Dis-De 탈현상이 이를 가장 잘 보여준다. 이것은 통일성, 전체성을 만들어 내는 개념을 부정하는 것으로 기존 구성방식의 부정으로 역설적 구성을 취하는 탈구성 중력에 대항하여 기울어진 각도로 수직·수평을 탈피하여 중심을 기울어지거나 형태의 중심이 안정감을 부여하는 중심을 벗어나 있는 형태를 보이는 탈중심으로 나타난다.

헤어스타일에서 보이는 탈중심의 경향은 시각적인 무게 중심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경우로 이는 곧 위치전환의 형식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포니테일의 위치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경우로 탈중심적인 경향과 동시에 보편적인 위치 개념이 전환되어 나타나는 예로 볼 수 있다(사진 37,38).



〈사진 37〉 위치 전환에 의한 탈중심적 헤어스타일



〈사진 38〉 탈중심적 헤어스타일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전통적인 헤어스타일에 있어 아름다움의 기준이 객관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는 보편성에 미적가치를 두고 있었다면 미적소외에 의한 헤어스타일은 그러한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미적 질서를 부정하는데서 출발한 충격과 환상의 소격효과로 의외성의 놀라움을 가져다주는 새로움을 추구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혼용, 왜곡, 파괴, 불완전, 비정형으로 분류되는 미적 소외의 특성은 독립적으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복합적 특성은 미적소외에 의한 예술의 자율성의 범위를 더욱 확대시키고 변화의 가능성을 더욱 확대시켜 헤어스타일의 다원화 경향을 더욱 부추긴다.

<표 1> 스트리트 헤어스타일의 미적 소외 유형

미적소외의 유형	표현적 특성	스트리트 헤어스타일
혼용	시·공간의 초월 대립적 요소의 공존 영역간의 경계 해체 이질적 요소의 공존	
왜곡	규칙적인 조화에서 벗어난 상태 인체의 비례 무시 기괴함, 괴상함 의식적인 과도성	
파괴	소재의 파괴 전통적 성개념의 파괴 형태, 질감, 칼라의 파괴	
불완전	임의성과 우연성에 의한 스타일로 정형화된 스타일을 탈피함으로써 불완전해 보이는 스타일을 허용하고 개인의 주관적인 미를 표현	
비정형	탈중심, 탈구성 위치전환의 형식	

IV. 결 론

본 연구는 헤어스타일에 나타난 미적소외의 표현적 특성에 관한 연구로 소외와 미적 소외의 개념에 관해 살펴보았고, 아방가르드, 추(醜)의 미학, 해체주의를 통해 미적소외의 표현적 특성을 추출하였다. 이러한 특성이 헤어스타일에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서울 압구정, 홍대, 대학로에서 헤어스타일을 촬영하여 미적 소외의 표현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미적 소외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하나의 스타일 내에 상반된 요소가 공존하는 ‘혼용’으로 경계의 초월, 이질적인 시간적·공간적 요소, 대립적 요소의 공존, 애매모호함, 해체, 변용, 불연속 등으로 설명 될 수 있다.

둘째, 규칙적인 조화에서 벗어난 상태 또는 비례의 무시로 기괴함, 괴상함 등에서 존재하며 의식적인 과도성의 결과인 ‘왜곡’이다.

셋째, 기존의 질서 또는 형식의 ‘파괴’가 있다.

넷째, 완전성에 대한 부정으로 ‘불완전’이 있다.

다섯째, ‘비정형’으로 정형화된 것을 부정하고 탈중심, 탈구성, 위치 전환의 형식 또는 일정한 규칙이나 룰의 지배를 받지 않는 무질서한 경향으로 나타난다.

헤어스타일에 나타난 미적 소외의 표현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나간 시대의 유행을 오늘을 사는 사람들의 기호에 맞게 재 수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레트로 스타일에 나타난 시간의 혼용, 서구적인 문화의 영향으로 금발로 염색 또는 탈색을 한 헤어스타일 또는 에스닉풍의 헤어스타일에 나타난 공간의 혼용, 또는 깃털처럼 가벼운 느낌의 헤어에 아주 무거운 뱅헤어를 혼용한

스타일 등에서 ‘혼용’의 예를 찾을 수 있다.

둘째, 인체의 비례를 무시한 디자인 또는 디자인 내에서의 부분과 부분의 질서와 조화가 무시된 경우로, 보편적인 기준의 인체에서 볼 수 있는 비례를 무시하고 디자인의 크기를 과도하게 부풀린 빅바운스(Big Bounce) 헤어 또는 헤어스타일의 질서와 조화가 무시되고 특정 요소를 극도로 과장한 펑크스타일의 스파이키 헤어, 스킨헤드 등이 ‘왜곡’에 해당된다.

셋째, 헤어스타일의 소재는 모발이어야 하고 모발 이외의 소재는 고정 또는 장식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었던 기존의 고정 관념을 탈피하고 이질적인 소재가 헤어으로써 사용이 된 경우나 전통적인 성의 개념 파괴로 여성의 남성화, 남성의 여성화 등이 ‘파괴’에 해당된다.

넷째, 우연과 임의성에 의한 자유로운 스타일은 정형화된 형을 탈피함으로써 불완전해 보이는 스타일을 허용하고 개인의 주관적인 미를 표현한 주로 야기한 느낌의 스트록 컷이나 디스커백션에 의한 가벼운 커트가 기본이 되어 주로 왁스를 비롯한 기타 스타일링 제품을 이용해 계획되지 않은 뻗치고 형클어져 보이는 스타일로 ‘불완전’의 미를 나타낸다.

다섯째, 디자인의 시각적 안정감이 중심을 벗어나 있는 경우나 비대칭적인 디자인으로 한쪽으로 기울여서 포니테일을 한 스타일 또는 기존의 헤어스타일에서 생각할 수 있는 모발이 고정되는 위치 또는 디자인의 포인트가 되는 위치 등이 전환되어 있는 경우가 ‘비정형’에 해당된다.

이상에서 나타나는 현대 헤어스타일의 다양한 특성들은 미적 기준이 다양화되어 유동적 미적 가치와 미적 기준을 받아들이는 미적 소외에서 찾아볼 수 있었으며, 혼용, 왜곡, 파괴, 불완전, 비정형의 미적 소외의 표현적 특성에 의해 현대의 젊은이들의 스트리트 헤어스타일을 분석할 수 있었다. 미적소외는 사회가 제시하는 미적 가치 기준을 불필요한 것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예술의 상대적 자율

성을 부여하여 예술의 다양화와 미적 가치와 미적 기준에 대하여 열린 개념과 비주류, 소외되고 은폐되었던 것에 대한 발견으로 새로움을 받아들이는 사고의 전환을 유발시켰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적소외는 소외의 개념이 사회의 변화와 함께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것처럼 시대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고, 다른 시대를 맞이하면 새로운 형태로 변화될 수 있다. 또한 미적소외는 변화하는 시대정신과 대중문화의 혼재적 양상으로 새로운 스타일을 더욱 다각화시켜 나갈 것이므로 향후 이러한 미적 소외 특성이 시대와 지역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공차숙 (2002). 「하위문화에 나타난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 분석 연구 : 히피와 펑크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지혜 (2001). 「소외(疎外)심리의 회화적 이미지에 대한 연구 : 작품 연구 중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묘영 (2002). 「현대헤어스타일에 나타난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문숙, 엄소희 (2000). 「현대 복식에 표현된 아방가르드의 유형별 특성 연구」. 복식문화연구학회, 8권 2호. pp.315~333.
- 김문환 (1989). 『마르쿠제 미학사상』. 서울 : 문예출판사.
- 김성곤 (1989). 『탈모더니즘 시대의 미국문학』. 서울 : 서울대 출판부.
- 김옥동 (1992).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 서울 : 현암사.
- 김지연 (1996). 「복식에 나타난 해체주의 양식」.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형효 (1993). 『데리다의 해체철학』. 서울 : 민음사.
- 민경환 (1993). 「소외의 심리학적 개념화」. *한국심리학회지*, 7권 1호. pp.71~88.
- 박길순, 이주연 (1996). 「히피 헤어스타일과 패션의 의미 및 영향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학회*, 7권 4호. pp.567~577.
- 양취경, 이진희 (2002). 「Comme des Garçons 작품에 나타난 미적 소외에 관한 연구」. *생활문화연구*, 16권. pp.23~50.

- 월간미술 篇 (1989). 『세계미술용어사전』. 서울 : 중앙일보사.
- 이건희 (2001). 「현대복식에 나타난 미적 소외에 관한 연구 : Rei Kawakubo의 작품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광래 (1989). 『해체주의란 무엇인가』. 서울 : 교보문고.
- 이수인, 박길순 (2000). 「현대 헤어스타일에 나타난 키치미의 상징성 연구」. 한국생활과학회, 9권 3호. pp.371~382.
- 이현아 (1998). 「해체주의 복식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선정, 안현경, 이귀영, 문윤경 (2001). 『미용미학과 미용문화사』. 서울 : 청구문화사.
- 정문길 (1978). 『소외론 연구』. 서울 : 문학과 지성사.
- 정희균 (1996). 「현대산업사회의 문화적 소외에 대한 도자공예의 의의와 역할」. 가야대학교 논문집, 5권. pp. 369~385.
- 조미영 (1998). 「현대 헤어스타일에 나타난 해체현상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희숙 (1997). 「소외를 주제로 한 패션일러스트레이션 연구」. 숙명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Ernst Fischer (1984), 『예술이란 무엇인가』. 김성기 역. 서울 : 돌베개.
- Llewelyn, John (1988). 『데리다의 해체주의』. 김세중, 서우석 역. 서울 : 문학과 지성사.
- Matei Calinescu (1993). 『모더니티의 다섯 얼굴』. 이영옥 외 3명 역. 서울 : 시각과 언어.
- Richard Kostelanetz (1977). 『아방가르드』. 양은희 역. 서울 : 시각과 언어.
- Wassily Kandinsky (1998). 『예술에 있어서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 권영필 역. 서울 : 열화당.

ABSTRACT

A study of Aesthetic Alienation Phenomena Found in the Street Hairstyle

Jeong Yu Jin

Major in Hair Design

Dept. of Fashion Art & Design

Graduate school of Art

Hansung University

This study relates to the expressive characteristics of aesthetic alienation found in the individuals' hair styles. For the purpose of it, this study defines the concept of alienation and aesthetic alienation, and extracts the expressive characteristics of aesthetic alienation through avant-garde, "aesthetics of ugliness", and deconstruction. In order to identify how these characteristics are expressed in the hairstyle, photographed people's hair styles seen in the main streets of Seoul, such as Apgujeong, Hongik University and Daehak-ro. Between 1p.m-6p.m. from October 9, 2004 to October 30, 2004, and analyzed the expressive characteristics of aesthetic alienation therefrom.

The aesthetic alienation's characteristics are outlined as follows:

First, they feature "mixing" that contradictory elements coexist within one style, representing transcendence of border, heterogeneous factors in time and space, coexistence of opposite factors, ambiguity, disorganization, transformation, discontinuity, and so on.

Second, they feature strageness or oddity, more specifically, deviation from regular harmony or disregard of proportion, that is "distortion" as a result of conscious excessiveness.

Third, there is "destruction" of existing order or formality.

Fourth, there is "incompleteness", which is negation against completeness.

Fifth, they feature "atypicality" disregarding what is formalized, decentralization, deconstruction, dislocation or disorderly tendency deviated from specified rules.

The expressive characteristics of aesthetic alienation shown on the hairstyle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examples of "mixing" include the "mixing of time" that is found on the retro style, which means modifying old styles appropriate to the taste of the contemporaries, the "mixing of space" that is found on the hairstyle dyed or decolored blonde due to the influence of Western culture or on the ethnic hairstyle, and those hairstyles that mix the light hair like a feather and the very heavy bang-hairstyle.

Second, they feature those designs that ignore the proportion of human body or the order among parts within the design. Examples of "distortion" include Big Bounce hairs that inflate the size of design,

ignoring the proportion seen in the human body according to the general criteria, punk-style's Spiky Hair that tremendously emphasizes specific elements, ignoring the orderliness or harmony in hairstyles, and the Skinhead hairstyle.

Third, examples of "destruction" include the case of using foreign materials as hair, being deviated from the stereotype that the materials of hairstyle should be hair, and other materials besides hair should be used only for the purpose of fixation or ornament, and masculinization of women and feminization of men by the destruction of the existing gender concept.

Fourth, the free style of casualness and voluntariness deviates from standardized shapes, and accepts incompletely looking style. The style represents the beauty of "incompleteness", basing the slight cut by disconnection, featuring the shaggy stroke cut that expresses the unique beauty of an individual, using wax and styling products and making the hair dishevelled, stretching and disorderly.

Fifth, the atypicality includes the style that the visual security of design deviates from the center, the ponytail style that leans to one side, featuring asymmetry and such a case where the position at which hair is fixed or the point of the design exists is dislocated.

The various characteristics of the modern hairstyles as seen above feature aesthetic alienation to accept flexible value or criterion of beauty according to various aesthetic standards. This study analyzed the street hairstyles of the contemporary youth based on the expressive

characteristics of aesthetic alienation featuring mixing, distortion, destruction, incompleteness and atypicality. The aesthetic alienation deems the aesthetic values or criteria presented by the society as unnecessary, and acknowledges the relative autonomy of art. It is considered that the concept leads the way of thinking to the acceptance of new things by encouraging the diversity of art, providing an open mind to the aesthetic values or criteria, and discovering non-mainline, and what has been alienated and concealed.